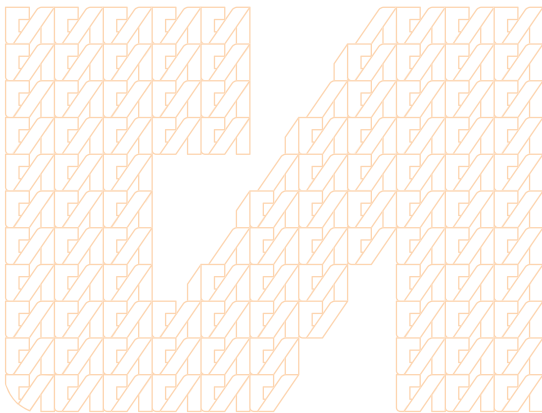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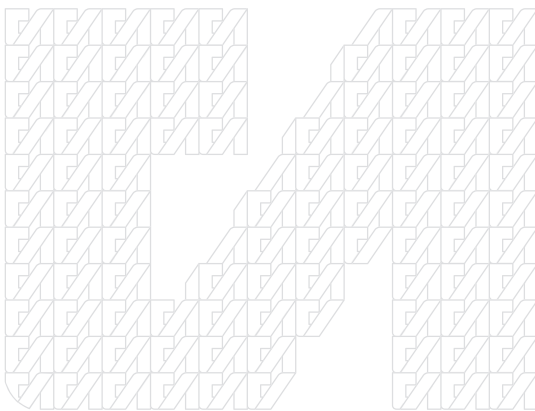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및 시민 협업을 통한 ‘지역적인 것’ 발굴과 활용 방안

주 혜 진 외



빅데이터 분석 및 시민 협업을 통한 ‘지역적인 것’ 발굴과 활용 방안

주혜진 외



연구책임

- 주혜진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한상헌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윤설민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이재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 김재연 / 사진작가
- 정병화 / School of Cities,
University of Toronto
Postdoctoral Fellow

연구지원

- 김지영 /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 이슬기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조명아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시민 컬렉터

- 권인호 / 주식회사 윈윙
- 김윤정 / 충남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디자인학과
- 김재연 / 글 쓰는 사람들 642클럽
- 김한솔 / 로컬42협동조합
- 박혜성 / 대전문화재단
- 오 늘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이 현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임유진 /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 피스어스
- 전우영 /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 학사과정
- 조규식 / 독립서점 삼요소

전략연구 2023-09

빅데이터 분석 및 시민 협업을 통한 ‘지역적인 것’ 발굴과 활용 방안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스토리온 TEL:010-5017-3712 FAX:0504-020-371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 및 방법

- 본 연구는 ‘지역성’ 혹은 ‘지역 정체성’으로 인식돼 온 대전과 세종지역의 ‘고유한 장소적 특성’을 크게 두 영역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탐색함
 - 지역성(정체성)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구성주의적 가정에 근거함
 - 지역성(정체성)은 지역민 개인의 입장과 경험이 반영되어 탈획일화 혹은 탈중심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함
- 지역 고유의 장소성 탐색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참여(컬렉터)를 통해 현장 조사를 진행함
 - 지역 (두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온라인 카페 5곳을 대상으로, 대전 카페의 경우 2006년부터, 세종 카페의 경우 2012년부터 작성된 글을 수집 분석함
 - ‘대전(세종) 살기’ ‘대전(세종) 어때’ ‘대전(세종) 분위기’ ‘대전(세종) 맛’으로 검색했을 때 크롤링된 199,387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함
 - 현장에서 지역의 장소성을 발굴하는 시민을 ‘컬렉터 collector’로 명명했으며, 대전을 대상으로 8명의 시민이, 세종은 2명이 참여함

■ 연구 결과

-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사람들은 사는 동네와 도시 정보 교환, 사적 관계에 얽힌 고민을 이웃과 풀어왔음
 - 2019년~2022년 사이에 대전과 세종 지역에 대한 게시글과 댓글을 가장 많이 작성함
 - 대전의 경우 2008년에서 2018년까지 결혼생활, 친밀한 관계 형성 문제, 동네 정보이야기가 주를 이룸

- 세종의 경우 2012년 행복도시가 조성되며 '아파트', '분양'과 같은 부동산 관련 단어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이다가, 점차 맛집, 공원 등 생활 관련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함

□ 2019년 이후 카페에서 사람들은 사는 동네와 친밀한 관계 이야기보다 아파트 구매와 가격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확연히 많이 하고 있음

- 2020년 전후 대전과 세종 지역 아파트 구매량과 가격의 상승이 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과 유사한 패턴
 - 2019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 '청약' 등의 단어가 점차 높은 비율 차지
 - 세종의 경우도 2020년 이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로

□ 지역에서의 삶은 '사는 곳'에서 '사는 것'이 됨: 일상에서 아파트 투자 이야기로의 대전환

- 대전에 대한 온라인 카페 이야기는 이웃(언니)과 동네 정보와 시댁과의 갈등, 가족 보살핌을 다루던 것에서 2019년 이후 아파트 이야기로 전환
 - 2020년~2022년 사이 부동산 열풍에 의해 부동산-투자 토픽이 가장 높은 비율
 - 일상-인간관계 토픽은 2012년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는 토픽 중 하나였으나,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여 2023년 현재 가장 낮은 비율의 토픽
- 세종에서의 삶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엔 도시 탐색이 주요 주제였으나, 2019년 이후 아파트 투자와 가치 관련 이야기로 전환
 - 계획도시인 만큼 2012년부터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토픽이 높은 비율
 - 일상과 밀접한 일상-맛집 토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2020년 이후 대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토픽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지역성과 지역의 장소가 지닌 의미를 찾는 시민 컬렉터 활동

-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통한 자신만의 도시 감각 방법, 시각 개발
- 사진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미학적 완성도 높은 창작물 생산 시도
- ‘지역적인 것’ 컬렉팅 작업 결과
 - 대전과 세종 지역의 ‘지역적인 것’을 찾는 컬렉터의 방법론적 특성, 시각의 발견과 적용
 - 나와 지역, 도시, 장소와의 관계 찾기를 통해 도시 정체성 규명
 - 도시의 다른 면, 숨겨진 이야기 발굴을 통한 입체적 도시 정체성 구성

□ 개인 아카이빙으로서의 ‘지역적인 것’ 발굴 활동과 결과물의 활용 제안

- 지역 ‘지리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 연령과 직업 등 시민의 삶과 요구에 기반한 도시 지식 형성
 - 시민에 가깝게 다가가면서도 깊이 있는 도시 지식 생산과 이해 가능하도록 청년 교육자 양성
- 시민 컬렉터 활동 결과물의 콘텐츠화 가능성
 - 숙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 공간 활성화
 - ‘스토리 메이킹’을 통한 명소화 작업
 -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색 수집
-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제안
 - 지역과 도시에 대한 거시적, 전문적 접근과 미시적 활동 결과물의 융합
 - 데이터 큐레이션 기반 도시 수집과 기록 생산, 공유 전략
 -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융합한 시민 참여형 연구 가능성

차 례

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6
2. 연구 범위와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구성과 방법	8
3. 연구 과정	10
2장 지역 정체성 연구 탐색과 분석의 틀	11
1. 지역 정체성 연구의 흐름과 특성	13
2. 대전지역 정체성 주요 연구 사례	21
1)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	21
2)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	23
3) 정체성 인식 자체를 중심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	25
3. 세종지역 정체성 주요 연구 사례	27
4. 분석의 틀	29
3장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대전과 세종의 지역 정체성 탐색	31
1. 분석 목적	33
2. 분석 개요 및 분석 내용	33
1) 분석 대상 선정	33
2) 분석 과정	35
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37
1) 데이터 수집	37
2) 데이터 전처리	38
4. 텍스트 분석 결과	39
1) 주요어 도출: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39

2) 이야기 주제 도출: Latent Dirichlet Allocation	42
3) 이야기 구조 파악: 의미연결망 분석	49
5. 소결	62
4장 시민 협업을 통한 대전과 세종의 지역 정체성 탐색	65
1. 시민 컬렉터 구성과 운영 개요	67
1) 시민 컬렉터 구성	67
2) 시민 컬렉터 활동 운영 과정	68
3) 시민 컬렉터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69
2. ‘지역적인 것’ 컬렉팅 작업 결과	71
1) 도시를 보는 시선의 발견	71
2) 도시 물성物性의 이면裏面 발굴과 해킹	82
3) 도시의 낯선 타인들을 비추는 마음	90
5장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 제안	101
1.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103
2. 시민 컬렉터 활동 결과물의 콘텐츠화 가능성 탐색	105
3. 지역 ‘지리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107
참고문헌	109

표 차례

[표 2-1] 시도연구기관이 수행한 ‘지역 정체성’ 연구 사례	15
[표 2-2] 역사문화자원에 바탕한 대전 지역 연구(최근 10년)	21
[표 2-3] 장소성에 근거한 대전 지역 연구(최근 10년)	23
[표 2-4] 정체성 인식을 중심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최근 10년)	26
[표 3-1] 지역에 대한 온라인 카페 게시글 크롤링 결과	37
[표 3-2] 대전에 대한 카페 게시글 LDA 결과	44
[표 3-3] 세종에 대한 카페 게시글 LDA 결과	46
[표 4-1] 시민 컬렉터 워크숍 프로그램	7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0
[그림 2-1] 분석의 틀	30
[그림 3-1] 텍스트 마이닝 분석 수행 절차	36
[그림 3-2] 대전 및 세종시 카페 크롤링 결과로 수집된 게시글 수의 시계열 변화 ·	38
[그림 3-3] 대전시 TF-IDF 워드클라우드	40
[그림 3-4] 세종시 TF-IDF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41
[그림 3-5] 대전 및 세종시 LDA모델의 토픽 수 별 Coherence값의 변화 ···	42
[그림 3-6] 대전 LDA모델의 연도별 토픽 비율 변화	47
[그림 3-7] 세종 LDA모델의 연도별 토픽 비율 변화	48
[그림 3-8]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07) ··	51
[그림 3-9]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0) ··	52
[그림 3-10]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6) ··	53
[그림 3-11]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8) ··	54
[그림 3-12]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0) ··	55
[그림 3-13]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3) ··	56
[그림 3-14] 세종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3) ··	58
[그림 3-15] 세종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6) ··	59
[그림 3-16] 세종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0) ··	60
[그림 3-17] 세종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2) ··	61
[그림 4-1] 시민 컬렉터 구성과 활동 과정 개요	69
[그림 4-2] 박혜성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73
[그림 4-3] 김재연(초록)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75
[그림 4-4] 오 늘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78
[그림 4-5] 조규식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81
[그림 4-6] 권인호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84

[그림 4-7] 전우영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87
[그림 4-8] 김윤정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89
[그림 4-9] 김한솔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92
[그림 4-10] 이 현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95
[그림 4-11] 임유진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98
[그림 5-1]	106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 과정

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지금은 지방시대지만, 지방사는 사람은 누락된 지역 담론

- 새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안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거주민의 체감과 평가가 도시 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향점임을 시사함
 - ‘살기 좋음’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지역 연구에서 ‘살기 좋음’은 여러 계량적 지표로 측정돼 왔음
 - ‘도시경쟁력’, ‘삶의 질’ ‘생활환경 만족도’ 등 도시민 전체 혹은 집단화한 대상을 기준으로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가’를 측정해 옴
 - ‘살기 좋은 지방’ 연구 혹은 담론에서 구체적으로 시민이 경험하는 도시(지역)은 추상적이고 거대한 행정단위일뿐 ‘체감성’이나 ‘구체성’은 부족함
- 지역에서의 삶이나 지역성을 탐구해 온 담론과 연구들이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민 전체의 삶이나 특성을 다루다 보니, 지역민의 실제 생각과 감각은 누락되기 쉬움
 -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에 대한 인식조사는 이슈 파악과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묻는데 용이하며, 조사를 통해 확보한 계량화된 결과 역시 지역성 파악을 위한 해석에 한계 있음
 - 개인 인터뷰(생애사적 접근)는 개인의 총체적인 삶이 지역과 연관돼 다각도로 지역이 조명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매력 있으나, 다양한 개인의 삶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는 어려움 있음
 - 지역민의 생각을 대량으로 수집해 데이터화 하면서, 질적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지역을 생각하고 감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적 실험이 요구됨

□ **개인이 인지하고 감각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필요**

- '당신에게 이 도시는 무엇인가'란 질문은 개인에게 지역과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 개인 수준에서의 도시(지역에 대한) 감응, 인지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생활수준과 정책 수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제시하지만,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계획은 자신과 상관 없는 이야기로 들림
 - 거대 정책 담론이 주도하는 도시 이야기는 거대한 계획과 미래만이 있고, 이는 개인에게 공허하게 느껴짐
 -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정답 없이, 비정형의 것으로 표현한 것을 수집해 분석할 필요 있음
 - 개인이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언제 도시와 지역을 '내가 사는 곳'이라고 느끼는지 그 순간을 포착해 분석해야 함
-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 지리, 공간과 지역성을 바라보는 것에서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관심을 둔 사람 즉, '지역 사람'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지역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야 함

□ **만들어가고 구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도시 정체성, 지역성**

- 개인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점과 개인의 도시 감각 경험 결과에 주목하는 입장은 도시 정체성과 지역성을 완성된 것이 아닌, 계속 구성되는 중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주장에 근거함
- 도시정체성에 대한 과정적 접근은 행정 단위와 자치 대상으로서의 지역이 아닌, '사는 사람'이 체득하고 재현하는 '사는 곳에 대한 생각과 감각' 결과물로서 도시와 지역을 성찰하고 규명하려는 노력이기도 함
 - 이러한 관점은 지역에 대한 관념 혹은 지역성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함
 - 김기희 외(2015)는 지리학자 Paasi의 논의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주어진 단어로 받아들이기보다 구성원과 구성체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

면서 변형하고 되어가는 것(becoming)임을 제안함

- 한상헌 외(2016)는 도시란 추상적 공간과 거주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시 정체성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천적 이해 혹은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함
- 지역성 혹은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역민이며, 이들이 도시에 대한 어떤 해석(생각)과 감각에 기반해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파악해야 함

□ '지역적인 것'은 장소와 개인 사이 상호작용의 결과물

- 꾸준히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을 연구해 온 공공연구기관들은 지역 정체성 형성의 기반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음
 - 역사와 문화유산, 유형 자산(건축물과 자연환경) 그리고 거주민의 지역 애착(소속감)이 주 연구 대상 됨
- 지역과 도시의 문화나 물성 materiality에 대한 거주민의 이해나 감정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간 과정을 생략한 성급한 결론임
 - 본 연구는 도시 장소의 물성 그 자체가 지닌 독립적 성격과 영향력, 그리고 이를 해석하고 경험하는 개인의 입장과 시각을 중요시하며,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함
- 밖에서 대전과 세종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해체하고) 지역 자체에 내재된 시각과 인식을 발굴하여 그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감각의 생산물에 주목하고자 함
 - 지역과 도시 정체성도 고정되고 획일적일 수 있으며, 고정된 인식의 확산에 기여하는 담론 형성도 있음
 - 탈획일화하고 서울 중심의 시각(탈중심화)에서 벗어난 지역성, 지역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할 필요 있음

- **소셜 미디어의 비정형 텍스트와 시민이 직접 드러낸 지역 정체성 탐구 필요**
 - 불특정 다수의 생각이 드러난 소셜 미디어 텍스트는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대전과 세종의 지역적 특성 혹은 대전과 세종지역이 무엇인지 드러냄
 -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소셜 미디어 등이 생산한 텍스트는 대전과 세종 지역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감각한 결과물임
 -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지역, 도시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 규명할 수 있음
 - 다양한 생애사, 입장과 경험 그리고 시각을 지닌 개인이 현 시점에서 대전과 세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각하는지, 그 과정과 결과물을 수집해 분석할 필요 있음
 - 고정된 시각 없이 도시 공간과 문화를 경험한 개인이 생산한 것은 ‘지역적인 것’이며,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함
 - 시각예술매체(사진)과 글을 통해 개인이 드러낸 지역성, 장소 체험과 사유의 결과를 분석할 필요 있음

2)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도시(지역) 정체성 규명 연구와 담론에서 흔히 누락되는 개인과 도시(지역) 사이 관계 형성 과정과 그 내용에 주목함
-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근거한 목적을 설정함:
 - 첫째, 소셜 미디어 텍스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이 발화한 도시 정체성의 내용과 특성, 시계열적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개인이 감각하고 생각한 도시 정체성, 지역성이 예술 매체로 표현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지역성 형성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제안하고자 함
- 지역 온라인 카페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은 발화자를 지역민으로 추정할 수 있어, 다수 개인의 지역 정체성 인식과 시계열적 형성 과정 추적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예술매체를 활용한 개인의 ‘지역적인 것’ 발굴 결과물은 앞으로 지역학

연구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양한 지위와 입장을 가진 지역민이 지역성 또는 ‘지역적인 것’을 탐색하는 시각을 개발하고 구체적 성과물로 표현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그 효과를 점검할 수 있음
 -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도시와 지역을 새롭게 재인식하도록 지원하고 ‘낯설게’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것’뿐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재미’를 찾는 작업을 실험할 수 있음
 -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지역적인 것’과 ‘새로운 재미’가 지역의 고유함 뿐 아니라 도시 브랜딩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요소 즉 ‘지역 문화 콘텐츠’로 응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대전과 세종의 지역적인 것을 시민이 직접 발굴하는 과정에서 두 지역 상생을 위해 필요한 특성과 융합적 성격을 찾아 구체화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 범위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 기존 도시 정체성 연구 혹은 지역학 연구의 지리적 대상
 - 소셜 미디어(온라인 카페 5곳) 이용자들의 대화 주제이자 지리적 대상
 - 지역적인 것 시민 컬렉터 그룹의 현장 활동지

시간 범위

- 문헌 수집 기준연도: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이내
 - 선행연구, 관련 자료 등 구득 가능성 고려하여 조정
-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수집 기준연도
 - 대전: 2006년 이후 작성된 온라인 카페 게시글과 댓글
 - 세종: 2012년 이후 작성된 온라인 카페 게시글과 댓글
- 시민 컬렉터 활동 기준연도: 2023년

2) 연구 구성과 방법

연구 구성

- 본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음
 - 대전과 세종 지역 정체성 혹은 지역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접근 방법 고찰
 -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전과 세종지역의 삶과 개인적 경험 및 시계열적 담론 변화 분석
 - 시민 컬렉터 10인의 활동을 통한 지역 특성과 장소성, 지역 정체성 발굴 결과 제시

□ 연구 방법

○ 문헌 수집과 분석

- 전국 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된 지역 정체성 혹은 지역성 연구 동향 파악
- 대전과 세종 지역 정체성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소셜 미디어 (온라인 카페)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 대전과 세종 지역 거주자가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온라인 카페 5곳 선정
- 자유게시판 내 도시 거주와 삶, 경험 관련 게시글과 댓글 크롤링
- 유의미한 단어 추출, 클라우드 형성, 토픽 형성과 시계열에 따른 토픽 변화, 주요어 간 네트워크 도출과 의미 분석

○ 시민 컬렉터 모집과 사전 교육, 현장 활동을 통한 '지역적인 것' 발굴과 기록

- 시민 컬렉터 사전 교육(워크숍), 전문 사진작가의 컨설팅 및 작업 지원
- 중간 발표회와 최종 발표회 개최를 통한 성과물 공유

3. 연구 과정

단계	방법	내용	
연구 설계	연구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방법 및 내용 구성 협의 • 지역학센터와의 협업 결정 	
문헌분석	문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내용 확정 • 연구 구성안에 따른 연구 진행 일정 확정 • 지역 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동향 파악 	
지역적인 것 데이터 수집과 분석	선행 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연구원 등 공공기관 시행 ‘지역 정체성’ 연구 자료 수집 • 최근 지역 정체성 연구 동향 분석 	
	소셜 미디어 텍스트 마이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온라인 카페 현황 조사와 대상 카페 5 곳 결정(회원 수와 활성화 정도 기준) • 크롤링 대상 검색어, 게시물 결정과 크롤링 • 데이터 클리닝 후 분석 대상 글 최종 11,197건, 댓글 188,190건 확정 • 분석 형태소 최종 1,773,886개 확정 • 주요어 도출, 토픽 변화와 점유율, 단어 간 관계 분석 	
	시민 컬렉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렉터 추천과 선정, 활동 계획 수립 • 그룹 워크숍 2회, 활동 주제와 방법 결정 • 컬렉터 3개 소그룹, 사진작가 개별 컨설팅 • 사진 작업, 글 작성과 최종 성과물 선정 • 중간 점검 발표회, 최종 발표회 개최 	
	전문가 자문	자문회의·콜로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법론, 결과물 해석과 공유, 정책적 의미 제안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지역 정체성 연구 탐색과 분석의 틀

1. 지역 정체성 연구의 흐름과 특성
2. 대전지역 정체성 주요 연구 사례
3. 세종지역 정체성 주요 연구 사례
4. 용어의 정의와 분석의 틀

2장

2장 지역 정체성 연구 탐색과 분석의 틀

1. 지역 정체성 연구의 흐름과 특성

- 지역 역사문화 사례 분석과 지역 정체성 인식 설문조사 중심의 기존 연구
 - 전국 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최근 십 년 동안 ‘지역성’ 혹은 ‘지역 정체성’을 주제로 어떤 연구가 진행됐는지 살펴봄¹⁾
 - 지역, 도시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대부분 시민 혹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함
 - 서울연구원(2014)의 공공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정체성 인식 조사, 경기연구원(2019)의 지역 소속감 현황과 자긍심 강화 방안 연구가 있음
 - 주민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성 혹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있음
 - 경기연구원(2018)의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 연구와 강원연구원(2018)의 민통선 마을 연구가 있음
 - 제주연구원(2014)의 연구도 제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 대상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제주 정체성을 탐색함
 - 특정 역사문화유산을 깊이 연구하는 경향은 지역의 정체성 탐구의 가장 일반적이면서 널리 쓰이는 방법임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인의 정체성 인식 탐색을 위해 한성부의 역사를 기록한 <한경지략>을 연구(서울학연구소, 2018)하거나, 신문을 통해 서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역사사회학적으로 접근함(서울학연구소, 2023)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2016)의 인천 설화 연구를 통한 지역성 탐색이나 울산연구원(2021)의 문화적 생산물 조사를 통한 정체성 재구성 양상 연구도 있음

1) 각 시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보고서 기준

- 전북연구원(2022)의 지역 '산악전설' 유형 분류 연구와 경남연구원(2013)연구도 유무형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깊이 탐구하여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임
- 최근 연구들은 지역 정체성을 발굴하거나 규명하는 작업 자체에 의미를 두는 단계에서 이를 상업적 혹은 브랜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임
 - 경남연구원(2023)은 지역 정체성을 지닌 사업 발굴을 위해 타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화 가능한 계획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제안하고 있음
 - 경기연구원(2020)의 '기전문화제' 사례 연구도 해외 사례 등 다양한 문화제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업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시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 정체성 연구들은 다양한 주체 참여, 즉 연구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실천 연구가 부족함
 - 한상헌 외(2019)가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형성과 이를 거점으로 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역량 형성과 확산이 필요함
 - 시도연구기관 산하 혹은 공공기관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지역학 연구의 거버넌스 추진 거점인 지역학센터와 함께 지역민 참여형 실천 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 있음

[표 2-1] 시도연구기관이 수행한 '지역 정체성' 연구 사례

연구명	기관	연도	주요 내용	방법론	정책적 활용
도시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 적용 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서울 연구원	2014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 공공디자인에 적용된 지역 정체성 인식의 차이 분석	설문조사분석	주민과 지자체간의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도시 이용자들을 위한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환원시킬 노력 필요
서울학의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연구 주제 제안	서울 시립대 서울학 연구소	2013	서울학의 의미와 현황, 사례를 통해 기존의 한정된 연구범위에서 확장을 제시	사례분석연구(서울시)	시민의 생활과 삶에 대한 연구, 서울과 자연에 대한 연구 필요
잡가 〈맹꽁이타령〉을 통해 본 서울의 세태와 도시민의 삶		2013	서울 근대전환기를 잘 보여주는 '맹꽁이타령'을 통해 서울 도시민의 삶의 애환 탐구	문헌연구(맹꽁이타령)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고려와 조선의 경기 비교를 중심으로		2015	경기를 통하여 조선의 국도(國都) 한양이 갖는 성격을 살펴 보고 서울의 정체성 탐구	문헌연구	오늘날 서울의 유교적 근대성이 갖는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 서구적 근대성 재인식
『한경지략(漢京識略)』을 통해 본 19세기 한 서울인의 자의식		2018	한경지략을 통해 19세기 문화사의 한 단면과 서울인의 자긍심 확인	문헌연구(한경지략)	
근대이행기 서울의 도시경관 변화와 주인의식 -'거리(街)'의 표상 변화를 중심으로-		2021	근대이행기 서울의 '거리'에 어떠한 표상들이 부여되었고, 그것의 사회적 변화, 최종적으로 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연구	문헌연구(독립신문)	
사라지는 공간, 포개어진 시간 : 1933년 『동아일보』에		2023	동아일보에 연재된 글을 통해 1930년대 초반 서울 도시 이	문헌연구(대경성 부감기)	

연구명	기관	연도	주요 내용	방법론	정책적 활용
연재된 「신록의 대경성 부감기」를 통해 본 서울			미지와 맺고 있는 관계 고찰		
고도심 동래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지속을 위한 정책제안	부산연구원	2021	동래의 장소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역 활성화 방향을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연구(부산 동래)	지역 정체성 찾기 방향과 자료 구축 방안, 문화재별 유형별 대응과 지역 지정 방안, 보존관리와 프로세스 구축 및 보완
대구 지역정체성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6	역사문화 및 특징에 바탕을 둔 정체성을 정립	문헌연구(문화자료분석)	미래비전을 담은 지역 고유의 특 징요소와 상징가치, 지역정신을 찾는 일련의 과정 재고
인천시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인천의 지역성과 애착에 미치는 영향	인천학연구원	2013	인천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지역성과 애착도 차이, 지역성이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탐구	설문조사분석	도시마케팅 전략과 친환경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사회 애착도 높이는 방안, 정교한 척도를 위한 기반 필요
인천의 근현대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법 연구		2014	인천 근현대 역사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형 제시를 통한 지역 시민 정체성 함양	사례분석연구(인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지역의 기록 보존, 지역성을 반영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스템 필요
인천의 투표율과 설문조사자료 분석 : 과연 정체성이 문제인가?		2015	인천의 정체성이 지역 중 가장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설문조사분석	추상적인 정체성 확립보다는 구체적인 선거 참여 독려가 필요
인천지역 설화를 통해 본 인천의 지역성 탐색		2016	설화의 유형을 통해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확인	문헌연구	
인천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공고화		2021	인천시에 위치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모색	사례분석연구(인천시)	
연구논총 제16호 <울산 광포>	울산	2019	울산의 문화생산물과 문화경	문헌연구(문화자료분	공업도시 이미지와 고래, 생태를

연구명	기관	연도	주요 내용	방법론	정책적 활용
전설(廣布傳說)의 존재양상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원		관에 내재되어 있는 도시 정체성 재구성 모색	석)	단절시키지 않고 연결하는 인식적 전환 재고
울산의 도시 정체성 재구성 양상과 과제: 문화생산물·문화경관을 중심으로		2021	여타 지역 광포전설과 대비되는 전승양상의 특징과 지역정체성 규명	문헌연구, 비교문화	지역정체성 규정 및 지역문화 산업 개발 기반 모색
수원시민 생활양식 및 정주 의식 조사를 활용한 수원시민의 생활문화와 정체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5	생활문화와 정체성을 구별로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	문헌연구	각 지역별(장안구:공공서비스 증진, 권선구:거주환경 개선, 팔달구:청년 정책, 영통구:저소득층 정책)맞춤형 정책 논의 필요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 연구	경기연구원	2018	양평군 지역이 가진 구조적 문제와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발전 전략 탐구,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인식 현황, 지역 자원 현황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사례분석연구(양평군), 심층인터뷰	지역발전전략 실천에 관련된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와 경기 공공기관과의 협력, 군의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모색
하남시 도시경쟁력강화 전략 연구		2018	하남시 도시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종 관련 계획 검토, 주민들의 의사 등을 반영한 도시경쟁력 강화 연구	사례분석연구(하남시), 설문조사분석	자원의 테마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필요, 버퍼가 있는 정확한 수요 조사, 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재고
경기도 정체성 및 도민의 자긍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2019	지역에 대한 소속감, 개인의 삶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정체성 및 자긍심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사례분석연구(경기도), 설문조사분석	경기학연구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경기학 관련 연구, 교육, 홍보, 시군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강화 필요.
원전지역공동체 확장파와 원전 위험인식의 차이		2019	원전에 위치한 지역사회공동체의 변천을 통한 지역 정체	사례분석연구(기장, 장안, 부산), 설문조사분	

연구명	기관	연도	주요 내용	방법론	정책적 활용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 해법-천년왕도의 기전문화제 도입으로 시작		2020	성 기전문화제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지역정체성을 강화시킬 필요	석 문헌연구, 사례분석연구(경기도, 해외 4개도시, 국내 4개도시)	기전문화제 구상을 위한 집단토의 마련, 문화제 조례 제정
국내 지역학 현황과 고양학 발전방안	고양시정연구원	2021	지역학 연구 동향 및 고양학 연구동향 분석과 주요 지역학 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고양학 발전방안을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연구(고양시)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다학제적 연구, 연구기반과 네트워크 구축 필요
강원도 정체성의 재구성을 위한 민통선마을을 연구	강원연구원	2018	민통선 마을의 특수성과 정체성	구술생애사	주민-지자체-국가가 연계한 접경 지역 재생사업 제안
강원학 진흥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역할	강원사학회	2019	강원학 현황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학 기반을 비교하여 지역대학과 자치단체 간의 협력 필요	사례분석연구(강원학연구소,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학 연구소)	중점연구기관 설립, 지자체 협력, 아카이브 구축
충북학 활성화방안 연구	충북연구원	2016	국내 지역학 연구의 동향을 통해 충북학 재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문헌조사, 사례분석연구(국내 지역학)	충북학 활성화 조례 제정, 연구소 주도 학회 창립, 아카이브 구축,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사업 추진
전북 지역 <산악전설>의 유형 분류 및 특징과 지역적 정체성	전북연구원	2022	전북'산악전설'의 존재양상 및 특징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수성, 정체성 파악	문헌연구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경남 농어촌 활성화 방안	경남연구원	2013	경남 농어촌 사업과 정책을 검토하며 정체성 파악,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방안 모색	사례분석연구(경상남도)	활용 가능한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콘텐츠화, 문화유산 보존 관리 시스템 강화, 지역주민 참여 강구, 홍보 및 연계사업 강화

연구명	기관	연도	주요 내용	방법론	정책적 활용
경상남도 정체성 강화를 위한 대표사업 발굴 연구		2023	경상남도의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대표사업 필요성	사례분석연구(경남, 10개 타도시)	경남 정체성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학술대회 및 역사문화답사 개최, 경남학총서 발간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제주연구원	2014	이주민 1세대를 대상으로 제주도 지역 정체성 분석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의 계승 발전, 상호교류 활성화

□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체험을 탐색하는 연구로

- 지역의 특성, 고유함 또는 정체성 연구는 공간에 대한 실증적, 역사적 설명, 장소에 대한 이해 또는 인식(개인적 장소 경험), 그리고 지역 환경의 가치 평가와 판단 (도시 관광 마케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변해옴(심광택, 2005)
- 박진한 외(2016)는 지역적인 특성, 로컬리티(locality)는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타 지역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을 의미하며, 타 도시의 개발 성과를 모방하기보다는 삶의 수준과 경험을 중요하게 보고 지역민의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박진한 외(2016)는 인천의 경우 특정 시기(개항)와 경험에만 집중해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역사문화자산이 개항이라는 단일한 기억과 공간으로만 치환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함
 - 박진한 외(2016)는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론을 차용해, 주류의 역사 구성에서 배제된 도시공간의 역사 공간을 새롭게 발굴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지역 체험 내용 표현의 다양화와 방법의 확장

- 이선정(2018)은 사진 기술을 활용해 문학적 표현인 ‘낯설게 하기’를 공간의 재현에 이용함
 - 익숙한 도시의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작업, ‘낯설게 하기’를 통해 장소성을 형성하는 작업은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천이 될 수 있음
- 이용원(2023)과 황훈주(2023)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내 공간을 발굴하고 의미를 성찰하여 글쓰기와 사진을 통해 새로운 방문의 목적과 재미를 제시하고 있음
- ‘낯선 것’ ‘새로운 것’은 사람들이 도시의 장소적 매력을 인식하고 호명하는 방식(주혜진, 2022b)이며, 새롭고 낯선 것은 장소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는 ‘재미 요소’로 확장될 수 있음

2. 대전 지역 정체성 주요 연구 사례

- 최근 10년간 대전 지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다룬 연구들은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형성과 삶의 흔적을 탐구한 연구들, 특정한 장소가 지니는 지역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들,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의 정체성 인식의 특성 자체를 분석한 연구들로 크게 분류될 수 있음

1)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

근현대사와 유교문화 유적, 선사시대 유적까지 연구 대상 확장

- 대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시기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던 일제강점기 유적, 해방 이후 근현대 유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러나 관점을 넓히면 대전이 도시로 성립되기 이전 회덕현과 진잠현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유적은 물론 선사시대의 유적까지도 연구 대상이 됨

[표 2-2] 역사문화자원에 바탕한 대전 지역 연구(최근 10년)

연구자(연도)	연구명
위경혜(2017)	극장 문화의 지역성 - 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고윤수(2018)	在朝日本人 쓰지 긴노스케(辻護之助)를 통해서 본 일제하 대전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 대전
송규진(2019)	일제강점기 충남도청 유치 이후 대전 발전의 한계
고윤수(2019)	일제하 대전의 한국인 유지들의 등장과 변화 - 1920~1935년 대전의 주요 한국인 공직자들과 지역사회
박근영·김영식(2020)	대전 근대문화유산의 다크투어리즘 자원화 방향에 관한 연구
김민석(2020)	해방 이후 대전피혁의 운영과 재편결과
박경목(2021)	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 설치와 확대
고윤수(2021)	1910~1930년대 대전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사회
홍용기(2023)	전쟁 트라우마와 문학적 해원 - 대전 골령골에서 한국전쟁의 기억
김상기(2023)	대전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과제

□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대전의 형성과 사회투쟁에 의미 부여

-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유적을 주목하는 연구가 활발했으며 특히 고윤수는 〈1910~1930년대 대전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사회〉, 〈1920~1935년 대전의 주요 한국인 공직자들과 지역사회〉등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을 소재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함
- 송규진(2019)은 일제강점기 대전이 충남도청을 유치하며 읍에서 부로 승격하고 충남의 중심지가 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조선인의 삶은 피해를 입고 대다수 일본인이 수익을 차지하는 ‘식민도시’ 대전 발전의 한계를 살핌
- 대전이 비록 일제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투쟁도 꾸준히 이어졌고 이를 주목하는 연구들도 진행됨. 대표적으로 박경목(2021)은 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상기(2023)는 유성의 병, 대전지역의 독립운동, 일제 지주에 대한 소작쟁의와 파업 등 대전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을 연구함

□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대전이 겪은 근현대사의 질곡을 성찰

- 대전은 민족사의 수난기였던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성장한 도시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아픔을 간직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박근영, 김영식(2020)처럼 다큐터리즘에 중점을 두고 대전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자원화 방향을 모색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
- 김민석(2020)은 해방 이후 대전피혁의 재편과정을 통해 지역기업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살펴봤으며 대전피혁이 갖는 지역성과 대전경제와의 관계를 확인함. 이 밖에 대전시민의 중요한 여가 생활이었던 영화 관람을 한국전쟁 이후 대전의 극장 문화로 풀이한 위경혜(2017)도 흥미로움

□ 전근대 시대 이뤄진 삶의 흔적을 중심으로 지역의 원류를 탐색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와 한남대학교 대전충청학연구센터에서는 2000년대에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성되기 이전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의 원류를 찾으려 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함
- <대전·충청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민속 분야를 중심으로>(1998)을 비롯하여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단재 신채호 등 유학자들의 사상을 조명하였고, 여흥민씨, 은진송씨 등 지역 유력 가문의 인물과 유적을 소개
- 또한 대전 서남부 신도시 지역의 선사유적, 유성구의 마을 공동체 신앙 등의 연구를 통해 대전 지역의 원류를 탐색

2)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

- 물리적 공간이 ‘장소’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장소가 장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간 내에서 삶의 경험을 축적한 지역 구성원들의 기억이 전승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경험의 기억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함. 대전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도 특정 장소 자체의 변화와 그 장소가 장소성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한 편으로는 지역 구성원에 대한 관점으로 장소에 대한 경험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천착하는 연구들이 진행됨

[표 2-3] 장소성에 근거한 대전 지역 연구(최근 10년)

연구자(연도)	연구명
신익호(2014)	현대시에 나타난 ‘대전 공간’의 형상 연구
김희식(2014)	대전 매춘공간의 형성과 변화
송기섭(2015)	대전의 장소성과 문학. 문학들
이용상·정병현(2019)	근대 대전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고윤수(2020)	일제하 유성온천의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김효경(2020)	대전 원도삼지역 이주민 이입(移入) 배경과 활동양상 - 도시민속학의 관점으로
한상철(2021)	식민과 제국의 교차로, ‘역(驛)’의 문학사 - 20세기 전반의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상현(2021)	문화공간으로서 ‘테미오래’의 활성화 방안 연구
고윤수(2023)	일제하 ‘대전시장’과 대전의 상인세력

□ 특정 장소의 변화와 장소성 형성 과정을 분석

- 철도의 보급과 함께 대전이라는 도시가 시작된 만큼, 대전의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장소는 철도가 지나는 역에 집중됨
- 이용상, 정병현(2019)은 대전이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형성되었고, 1910년 호남선의 분기점이 대전역으로 결정되며 대전이 신흥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대전역의 변화와 지역의 발전에 대해 분석함
- 한상철(2021)은 1900년대 초반 철도 개통과 함께 세워진 대전역의 변모를 한국과 일본의 문학 텍스트로 검토하고 신흥도시 대전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줌
- 근대 시기 대전 지역의 가장 유명한 관광자원은 유성온천이었음
- 고윤수(2020)는 유성온천의 장소성을 주목하면서 1914년 온천수 용출에 성공한 대전의 재조일본인들은 유성온천을 개발했고, 유성온천의 발전은 온천시설 개수는 물론 도로와 철도 등 도시 인프라의 확충, 여관과 터미널, 상점의 입점 등 주변 지역의 개발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성온천은 대전이 식민지 시대에 발전·형성된 도시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함의가 있음을 밝힘
- 한상현(2021)은 <문화공간으로서 ‘테미오래’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대전 도시의 생성과 발전 과정에서 과거 충남도지사관사촌이 지니는 장소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살려 대전의 특화된 대표 장소로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

□ 장소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경험과 가치관 형성에 주목

- 대전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토착인구 비율이 낮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대전이 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러한 특성을 포착하고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데, 대표적으로 김효경(2020)은 대전 원도심 지역 이주민 이입(移入) 배경과 활동 양상을 분석

- 그 내용에 따르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근대식민도시로 성장한 대전은 일제강점기에 이주민 유입과 한국전쟁기에 피난민의 이입이 두드러졌음. 대전역 인근 이주민 주거지가 조성되었고, 이주민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대전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밝힘
- 일제강점기의 대전시장에 대한 고윤수(2023)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흥미롭게 분석됨
 - 초기 신생도시 대전은 대전역 설치 이후,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상업도시로 성장했고, 대전시장에서 나오는 부를 바탕으로 상인들은 대전의 유지층이 되었음
 - 대전의 공간적 외연이 확장되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대전시장이 공격받았으나 상인들은 적절히 방어하며 이익과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소감이나 장소애를 문화예술작품과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도 눈에 띈
 - 대표적으로 신익호(2014)는 목척교, 산, 대전역, 하천 등 대전 공간이 현대시에 어떻게 수용되어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살피면서 장소 체험의 주체로서 시인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대전의 정체성과 특수성 정립을 시도함

3) 정체성 인식 자체를 중심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

- 대전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과 발현 양상, 특성 자체에 대한 총론적 연구, 융합적 연구, 특정 소재를 통해 지역정체성의 단초를 파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시기적으로는 근대도시로서 대전이 형성·발전되던 것에 관한 연구와 과학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도시의 정체성을 얻어가는 것에 관한 연구로 구분됨

[표 2-4] 정체성 인식을 중심으로 한 대전 지역 연구(최근 10년)

연구자(연도)	연구명
권선정(2016)	근·현대지도를 통해 본 대전의 지역변화와 도시 정체성
김영모(2020)	대전의 과학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고윤수(2021)	식민도시 대전의 기원과 도시 공간의 형성
박수연(2022)	논쟁과 구성 - 전여해와 대전 지역 해방공간의 시적 정체성
남기택(2022)	윤채한 시와 1960년대 대전문학
문성남·정선기(2022)	마을만들기 운동과 시민연대 -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를 중심으로

근대 대전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

- 정체성 인식 자체에 관한 연구에서도 고윤수의 작업들은 두드러짐. <식민도시 대전의 기원과 도시 공간의 형성>(2021)에서는 대전 지역사를 전통시대부터 이어지는 지속이 아닌 단절의 시각으로 파악하면서 20세기 초 대전역의 설치와 일본의 식민권력에 의해 대전이라는 공간이 재발견되는 과정을 살핌
- 해방 직후 대전의 정체성에 대하여 문학 장의 특성과 연결지어 탐구한 작업도 이채로움
- 박수연(2022)은 해방 이후에 활동하기 시작한 대전을 대표하는 문인들 중 전여해와 송석홍의 1950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개된 향토문학 논쟁을 다루고, 중앙과 분리된 지역의 순수 향토문학의 정체성을 분석함
- 남기택(2022)은 한국의 주류적 흐름과 내용적 형식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1960년대 대전 문학사의 특수성을 윤채한 시를 통해 살펴봄

현대 대전의 새로운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

-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의 탄생과 발전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됨
- 김영모(2020)는 대전시와 대덕연구단지의 협업이 늦게 시작되어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사례를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시가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적, 행정적 지원,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홍보 등을 할 것을 제안함

- 최근에 문성남, 정선기(2022)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를 가져온 마을 만들기 운동을 분석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피는 융합적 연구를 진행함

3. 세종 지역 정체성 주요 연구 사례

□ ‘세종학’ 연구를 통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체성 탐색 추진

- 과거 연기군·공주시 장기면과 반포면, 의당면의 일부·청원군 부용면이었던 지역적 공간이 2012년 ‘세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도시로 출범됨
- 이 도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코자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도시 출범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 구현을 위한 ‘세종학’ 연구가 시작되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학진흥위원회’를 2019년 2월 조직하고, 여러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세종시의 지역 정체성 규명 및 발전적 정립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반 형성과 추진 전략 고찰

- 이재민 외(2020)는 지역학으로서 세종시 지역을 탐구한 첫 연구 성과를 발표함
- 세종시는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학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음
 - 2019년 1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제적인 기반을 완비하였고, 교육 지원과로 전담부서를 설정함으로써 행정적인 관점에서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세종학’은 어떠한 학문이냐는 나름의 관점에서 개념을 구명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서는 세종학은 앞으로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Who)이, 세종

시의 모든 공간적 영역을 대상으로(Where), 지역학 정립과 진흥 활동(What)을 학제간 연구 및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연구(How)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음

- 이재민 외(2022)의 연구는 세종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두 번째 연구로, 비전과 연구 방향성을 제시함
- 대전세종연구원 내에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2021년)를 개소하였음
 - 연구센터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세종학포럼’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과연 세종학의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음
- 이 연구는 세종학의 장기적인 비전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외부·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여야 했음
 - 전문가 FGI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부·내부 환경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①정체성의 공유, ②공동체적 연대, ③균형발전 견인, ④다양성의 포용, ⑤참여하는 미래 등 핵심가치를 산출하였음
- 핵심가치를 반영한 이 연구의 비전으로서 ‘포용적 미래가치를 함께 만드는 ‘세종학’”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함:
 - ① 다양한 지역 자원의 전략적 활용
 - ②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균형적 탐구
 - ③ 시민참여 중심의 지역학 확산
 - ④ 연구·활동 거점으로서 지역학 연구센터 역할 정립
- 세종학이 지역학으로서 거듭나려면 시민인식의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며, 시민과의 실천 연구 중요성이 제기됨

시민 참여형 연구 기본 구상과 실천 전략 모색

- 세종학 진흥조례가 2018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세종학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종학에 관한 시민의 인식과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함

- 지역학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전제로 함을 일러두면서, 이를 ‘세종학 거버넌스’라 명명함
 - 세종학 거버넌스의 주요 골자는 세종시에서 지역학 관련기관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음
 - 즉 전통문화에 특화된 ‘세종문화원’,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 분야의 전문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세종테크노파크’, 생활밀착형 기관인 ‘복합커뮤니티센터’, 학교 기관으로서 ‘세종시 교육청과 학교’를 설정하고, 이를 연계하고 협력하는 역할, 즉 플랫폼의 역할을 지역학연구센터가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이같이 세종학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주체적인 기반 위에서 네 가지의 추진전략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 ① 가족 대상 지역학 콘텐츠
 - ② 이야기 자원의 활용전략
 - ③ 지역학 교육
 - ④ 지역학 인력양성 등의 추진전략
- 세종학이 시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비전으로서 ‘세종시 일상에서 누리는 ‘시민 세종학’이라는 비전을 제안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 8가지를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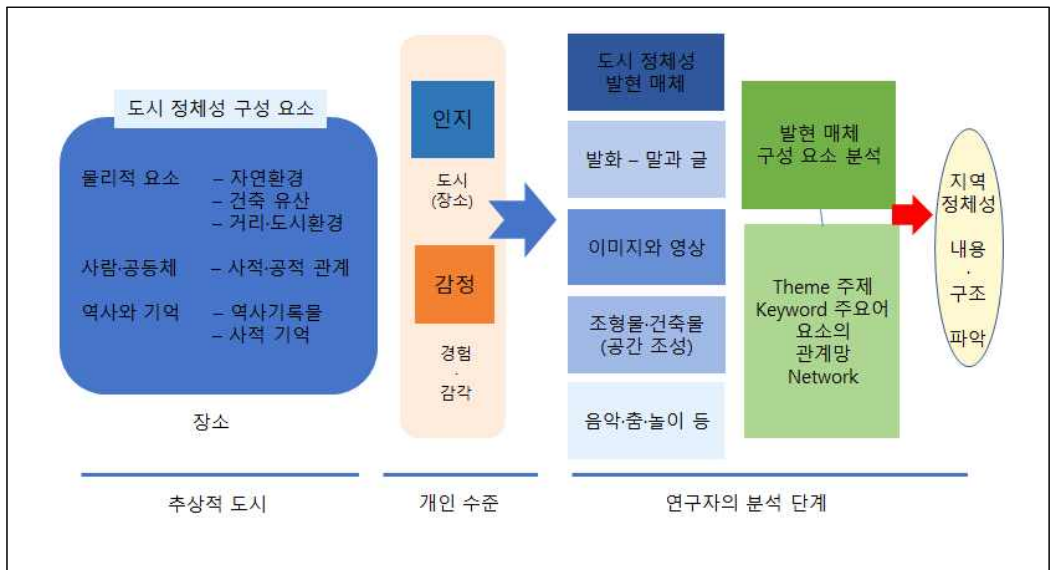
4. 분석의 틀

도시 정체성 구성 요소를 인지하고 감각하는 개인의 경험 분석

- 거대하고 추상적인 장소로서 존재하는 도시와 개인적 수준에서 이를 경험한 내용 분석
 - 한상헌 외(2016)에 소개된 Scannell & Gifford(2010)의 도시 장소

정체성 형성 요소 참조

- 사람과 장소 인지하고 감각하는 과정 주목
- 분석 대상은 개인이 경험한 도시 정체성 혹은 지역성(지역적인 것)이 드러난 매체: 말과 글, 이미지
- 발화한 말과 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주제 theme과 주요어 keyword 그리고 이들 사이 관계망 network 도출
-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파악



[그림 2-1] 분석의 틀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대전과 세종 지역의 정체성 탐색

1. 분석 목적
2. 분석 개요 및 분석 내용
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4. 텍스트 분석 결과
5. 소결

3장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대전과 세종 지역의 정체성 탐색

1. 분석 목적

- 지역민 혹은 지역에 관심 있는 발화자의 ‘지역에 대한 말’ 수집 분석
 - 행정 단위로 인식되는 대전과 세종을 ‘사는 장소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소셜 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파악
 - 지역에서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 대한 말 (이야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지역성 혹은 지역 정체성 파악
 - 같은 장소를 매개로 공유된 기억, 장소에 대한 생각, 장소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말 (이야기) 수집과 분석
 - 비정형 데이터인 온라인 카페 말뭉치 속에서 대전과 세종 지역의 특성을 구성하는 핵심어와 주제 문장 도출
 - 사는 장소인 대전과 세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주요 단어들과 단어 들 사이 관계 파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어 도출
 - 사는 장소인 대전과 세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주 중요하게 언급 되는 주제 도출
 - 핵심어와 주제 파악, 핵심어들 사이 관계 형성 결과 분석을 통한 ‘지역성 혹은 지역의 고유함’ 탐색

2. 분석 개요 및 분석 내용

1) 분석 대상 선정

- 크롤링 대상 온라인 카페 선정
 - 대전과 세종 지역 자체가 주제인 온라인 카페 탐색
 - 특화된 목적이 없는 온라인 카페여야 함(동호회, 팬카페, 상업적 목적, 맛집 찾기, 특정 동네만을 위한 카페 등 제외)

- 맛집 찾기 카페의 경우 음식점에 한정한 대화가 대부분이며, 주제 역시 매우 특화되어 있어 도시 장소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 있음
- 카페 가입 인원과 일일 새글 수 를 고려하여 선정
-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의 삶 전체 혹은 일반을 다루는 카페를 대상으로 함
 - 대전과 세종에서 집 구하기, 동네 생활 문제 해결하기, 이웃 사귀기, 아이 키우기 등을 다루는 온라인 카페 5개 선정
 - 대전에 대한 온라인 카페 1개, 세종에 대한 온라인 카페 1개, 대전과 세종에 대한 온라인 카페 3개
 - 카페 가입자 수 3만 7천여 명부터 32만여 명의 대형 카페까지 대상으로 함

□ 온라인 카페 내 크롤링 대상 게시판 선정

- 카페 내 게시글과 댓글 전체는 지나치게 방대하며²⁾, 중고품 구매 등 활성화된 특정 게시판의 경우 지역성과 거리가 큰 경우 많음
- 카페의 전체글을 크롤링 하는 것이 아닌 지역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을 선택하여 크롤링함
- ‘지역 생활’ 혹은 ‘지역성’ 탐색이 가능한 양질의 게시판 찾기
 - 특정 검색어를 활용하여 크롤링 대상이 될만한 게시판을 찾아 크롤링 대상으로 선정
 - ‘동네’ ‘살기’ ‘어때’ 등을 통해 카페 내 어떤 게시판이 크롤링에 적합할지 결정
- 5개의 온라인 카페 내 자유게시판, 지역 토론방, 수다방 등의 게시판 선정

□ 크롤링 게시글 선정

- 카페 가입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면, 한 게시판을 선정했다고 해도 게시글 모두를 크롤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네이버는 게시글 페이지를 1000페이지까지만 공개하고 있어, 그 이상이 되면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음. 자유게시판의 경우 게시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라인 화면 상 마지막 페이지 게시글이 2022년에 불과한 경우도 있음

- 한 게시판 안에서도 지역 이야기에 집중된 글과 댓글을 크롤링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살기', '어때', '분위기', '맛'을 이야기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크롤링함
- '대전(세종)에 대한 게시글'이란 크롤링 시 사용한 검색어 기준임
 - '대전 살기' '대전 어때' '대전 분위기' '대전 맛'으로 검색했을 때 크롤링된 글은 '대전에 대한 글'로 분류함

2) 분석 과정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일련의 텍스트마이닝 분석의 과정은 [그림 3-1]과 같음

단계	방법	내용
카페 선정	연구진 회의 · 사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세종 관련 온라인 카페 5개 선정 크롤링 대상 게시판과 글 선정
▼		
게시글 크롤링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Python 이용 Selenium, BeautifulSoup패키지를 활용하여 선정된 카페의 게시글 수집
▼		
크롤링 결과 전처리	불용어 처리 및 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불용어 및 불용어구를 선정하여 제거 게시글 중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제거
▼		
단어 토큰화 및 품사 처리	형태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이썬 형태소 분석기인 Konlpy의 Mecab 사전 활용하여 게시글의 토큰화 명사, 동사, 형용사 단어만을 선택하여 최종 분석 데이터 구축
▼		
핵심어 도출	TF-I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문서 별 중요 단어 파악 TF-IDF 기법 활용 연도별 중요 단어 클라우드와 중요도 도출
▼		
이야기 주제 도출	L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슷한 주제 가진 단어들로 클러스터링 토픽 도출과 토픽별 내용 파악 문서별 토픽의 비율의 시계열 분석
▼		
이야기 구조 도출	단어 네트워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IDF로 도출된 중요 단어들을 바탕으로 동시 출현 빈도 매트릭스 구축 페이지랭크 기법 활용하여 단어 간 관계 도출

[그림 3-1] 텍스트 마이닝 분석 수행 절차

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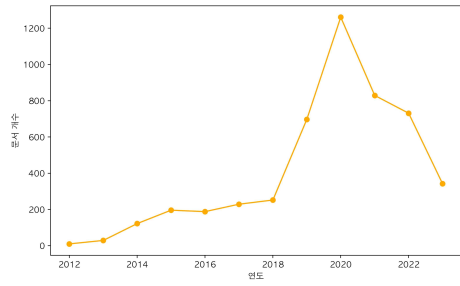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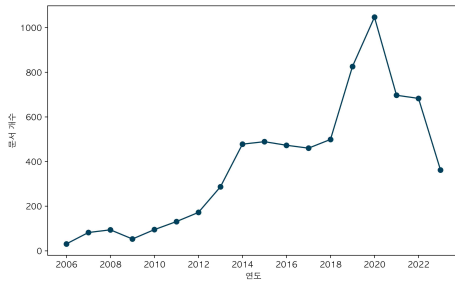
1) 데이터 수집

- 카페 내 다양한 게시판 중 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을 선정 후 키워드 검색을 통해 크롤링 수행
 - 대전시 카페의 경우 검색키워드는 '대전 살기', '대전 어때', '대전 분위기', '대전 맛'
 - 세종시 카페의 경우 검색키워드는 '세종 살기', '세종 어때', '세종 분위기', '세종 맛'
- 크롤링 기간은 크롤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색이 가능한 최초의 글에서부터) 가장 과거의 게시글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작성된 글로 설정함
 - 대전의 경우 2006년이 시작점, 세종은 2012년임
- Python과 Selenium, BeautifulSoup패키지를 활용하여 게시글 수집
- 대전과 세종에 대한 글 최종 크롤링 한 결과:

[표 3-1] 지역에 대한 온라인 카페 게시글 크롤링 결과

지역	항목	크롤링 수(건)	합계
대전	게시글	6,827	102,453
	댓글	95,626	
세종	게시글	4,370	96,934
	댓글	92,564	

- 연도별 게시글 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그림 3-2)
 - 대전과 세종시 모두 공통적으로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급격히 게시글 수가 증가하고, 2020년 이후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대전) (세종)
[그림 3-2] 대전 및 세종시 카페 크롤링 결과로 수집된 게시글 수의 시계열 변화

2) 데이터 전처리

- 크롤링된 결과는 한글, 숫자, 영어 등 다양한 문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분석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사항, 광고 등 불필요한 게시글이 섞여있어 전처리과정이 필요
- 먼저 크롤링된 게시글내용에서 영어, 숫자, 특수문자 등 한글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삭제
- 불용어 사전을 활용하여 게시글에서 불용어를 삭제
 - 불용어 사전의 경우 수집된 게시글을 살펴보며 구축
 - 특히 카페 게시글의 경우 카페 내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이 함께 크롤링 되었기 때문에, 각 카페 별 공지 및 유의사항 문장을 불용어로 활용
 - 광고로 판단되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여 분석에서 제외
- 이후 Konlpy 패키지의 Mecab사전을 활용하여 명사, 형용사, 동사를 추출

지역	항목	개	합계
대전	일반명사	731,239	847,306
	고유명사	85,410	
	형용사	30,657	
세종	일반명사	797,296	926,580
	고유명사	108,147	
	형용사	21,137	

- 전처리 결과, 대전의 경우 약 84만여 단어, 세종의 경우 약 92만여 단어, 총 1,773,886개의 단어가 TF-IDF, LDA 및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됨

4. 텍스트 분석 결과

1) 주요어 도출: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 TF-IDF기법은 문서 집합에서 각 단어의 중요성(가중치)을 계산하는 방법 (주혜진, 2022)
 - 모든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보다 특정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 단순 발생빈도가 높은 순으로 가중치를 매기는 기존의 단어빈도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탐색
-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중요 단어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TF-IDF 수행
- 효과적으로 TF-IDF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눈에 띄는 변화가 존재하는 연도들을 선택
- 대전의 경우 2008, 2010, 2012, 2021년을 선택
 - 공통적으로 '대전'이라는 단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
 - 2008년의 경우 신랑, 엄마 등 인간관계와 관련된 단어가 다수
 - 2010년 '아파트'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이후 2018년까지 신랑, 친정 등 일상관련 단어와, 돌잔치, 사진, 촬영, 맛집 등 정보관련 단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
 - 그러나 2019년 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 '청약' 등의 단어가 점차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맛집정보와 더불어 높은 비율을 보이는 주제가 됨 (2022년 참조)



[그림 3-3] 대전시 TF-IDF 워드클라우드

○ 세종의 경우 2012, 2016, 2020, 2023년을 선택

- 세종시의 경우, 대전보다 빈도는 낮지만 세종이 중요 단어로 도출
- 2012년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가 조성되며 '아파트', '분양'과 같은 부동산 관련 단어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세종시가 안정화되어가며, 맛집, 공원, 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
- 그러나 2020년이후 부동산붐에 따라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로 분석됨

- 부동산 침체이후 부동산관련 단어보다 맛집과 관련된 단어들 비중점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급매'와 같이 부동산 가격하락과 관련된 단어도 발견



[그림 3-4] 세종시 TF-IDF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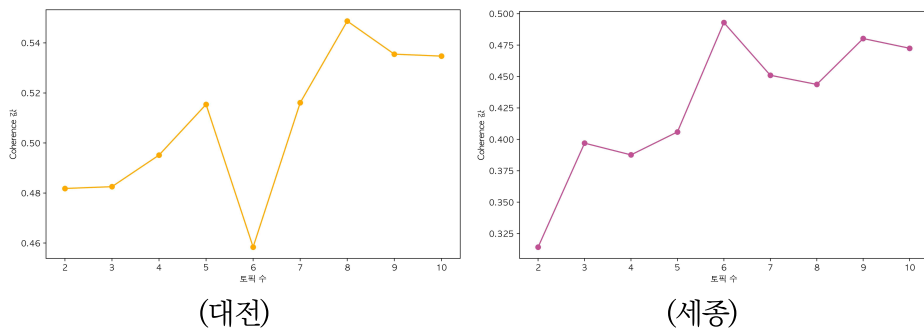
- 하지만 TF-IDF분석은 각 연도별 중요단어를 드러내기 때문에 문서들의 주제를 분석하고 주제들의 시계열 변화 분석에 한계 존재
- 따라서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활용하여 전체 문서에 존재하는 잠재 토픽들을 군집화하고 이들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할 필요성 존재

-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가능

2) 이야기 주제 도출: Latent Dirichlet Allocation

-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문서들이 토픽들의 집합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전체 문서에 존재하는 토픽들을 파악하는 기법(정병화·김준우, 2020; 주혜진, 2022)
 - 전처리된 단어들을 클러스터링 하여 토픽들을 파악
 - 파악된 토픽을 바탕으로 각 문서 내 토픽들의 비율계산 가능
 - 이를 바탕으로 전체문서에서 각 토픽들이 차지하는 비율 및 시계열 변화를 분석 가능
- 대전 및 세종시 카페 크롤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LDA분석을 각각 수행
- 각 도시 별 최적의 토픽수를 찾기 위해 토픽을 2개에서 10개까지 조정하며 LDA모델을 수행하고, Coherence 값을 구축
- Coherence값이 높을 수록 토픽이 적절하게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대전시 카페 데이터의 경우 최적 토픽수가 8개, 세종의 경우 6개로 확인 (그림 3-5)
- 대전과 세종의 최적 토픽 수를 바탕으로 LDA를 각각 수행하여 최종 대전 및 세종의 LDA결과를 각각 도출



[그림 3-5] 대전 및 세종시 LDA모델의 토픽 수 별 Coherence값의 변화

○ 대전 카페 게시글의 LDA 결과 각 토픽은 주로 부동산, 일상과 관련된 토픽

- 토픽0(부동산 - 정주환경) :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의 집합인 토픽 0은 주로 정주환경에 대한 단어인 '괜찮', '추천', '공원', '병원', '마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지에 대한 토픽
- 토픽1(지역경제) : 지역의 개발 사업이나 경제 등과 같은 대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토픽
- 토픽2(일상 - 맛집) : 일상과 관련된 토픽으로서 주로 식당, 카페, 돌잔치 등 다양한 맛집과 관련된 단어들 모여있음
- 토픽3(일상 - 인간관계) : 토픽2와 같이 일상과 관련된 토픽이나, 맛집추천 위주의 토픽2와 달리 남편, 시댁, 친정 등 인간관계에 대한 단어가 모여있는 토픽
- 토픽4(일상 - 맛집2) : 토픽2와 유사한 토픽이지만 돌잔치, 카페 등의 단어가 제외되었으며, 칼국수, 김치, 순대와 같이 전통적 음식이 추가됨
- 토픽5(부동산 - 학군 및 교육) : 토픽0처럼 부동산관련 토픽이지만, 토픽 5는 주로 학군과 교육에 대한 단어들 주로 나타남
- 토픽6(부동산 - 투자) : 토픽6은 토픽0과 토픽5처럼 부동산관련 토픽이나 앞선 두 토픽과 달리 투자의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음
- 토픽7(일상 - 사진) : 토픽7은 일상관련 토픽으로, 특히 아이 사진 촬영에 대한 단어들 주로 분포

[표 3-2] 대전에 대한 카페 게시글 LDA 결과

순위	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1	아파트	대전	대전	대전	맛있	아파트	감사	사람
2	감사	지역	맛있	신랑	정보	대전	분양	감사
3	관저동	개발	음식	친정	대전	생각	생각	생각
4	괜찮	사업	예약	사람	감사	학교	대전	아이
5	마을	도시	돌잔치	엄마	맛나	아이	부동산	사진
6	대전	경제	괜찮	남편	칼국수	세종	아파트	카페
7	추천	구역	분위기	생각	부탁	학군	가격	대전
8	공원	세종	사진	시간	쪽지	동네	투자	시간
9	동네	서울	가격	언니	시장	이사	전세	엄마
10	근처	계획	맛나	시댁	맛집	학원	상승	축하
11	가깝	기업	추천	서울	주문	추천	사람	마음
12	이사	문제	시간	주말	김치	신축	청약	병원
13	주변	가능	기대	힘들	가격	괜찮	주택	친구
14	소음	지방	커피	부산	검색	초등	매물	분위기
15	동구	공사	맛집	아들	택배	직장	매수	걱정
16	문화	추진	식당	아이	근처	상권	정도	촬영
17	병원	발전	준비	친구	식당	둔산	신축	고생
18	마트	인구	떡볶이	여행	배달	주변	대출	아기
19	법동	사람	짬뽕	부부	케익	정도	매매	덧글
20	백화점	필요	감사	결혼	순대	단지	입주	행복

○ 세종 카페 게시글의 LDA 결과 또한 대전과 유사하게 주로 부동산, 일상과 관련된 토픽으로 나타남

- 토픽0(일상 - 맛집) : 맛집과 관련된 토픽으로서, 특히 분위기 좋은 카페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토픽1(일상 - 정치) : 대전의 LDA결과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토픽으로서,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새롭게 조성된 도시인 만큼 수도권이전 및

정치관련 단어들이 주로 분포

- 토픽2(부동산 - 학군) : 부동산 관련 토픽으로서 대전 LDA의 토픽 5 처럼 학군과 교육에 대한 단어들이 주로 분포
- 토픽3(공원 - 금개구리) : 세종시 중앙공원에 금개구리가 발견됨으로서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된 이슈에 대한 토픽
- 토픽4(부동산 - 투자) : 대전 LDA의 토픽6과 같이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토픽. 대전과 달리 서울, 대전 등 다른 도시들이 등장하여 세종시의 투자가치를 비교.
- 토픽5(부동산 - 정주환경) : 부동산관련 토픽으로서 토픽2와 유사하지만, 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의 정주환경 (공원, 상권, 교통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룸

○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토픽4의 상위 40개 중요 단어에 강남이라는 단어가 포함

- 강남이라는 단어가 세종의 부동산 토픽에 등장하는 이유는 60년대 후반 강남지역이 개발된이후 강남지역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미래에 세종시도 강남처럼 될 것이라는 계시글들이 다수 존재
- 세종시 내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과정 있어 강남역 혹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접근성 또한 고려하고 있음
- 행복도시 내 금강 이남 지역을 세종 주민들이 강남지역으로 부르는 경향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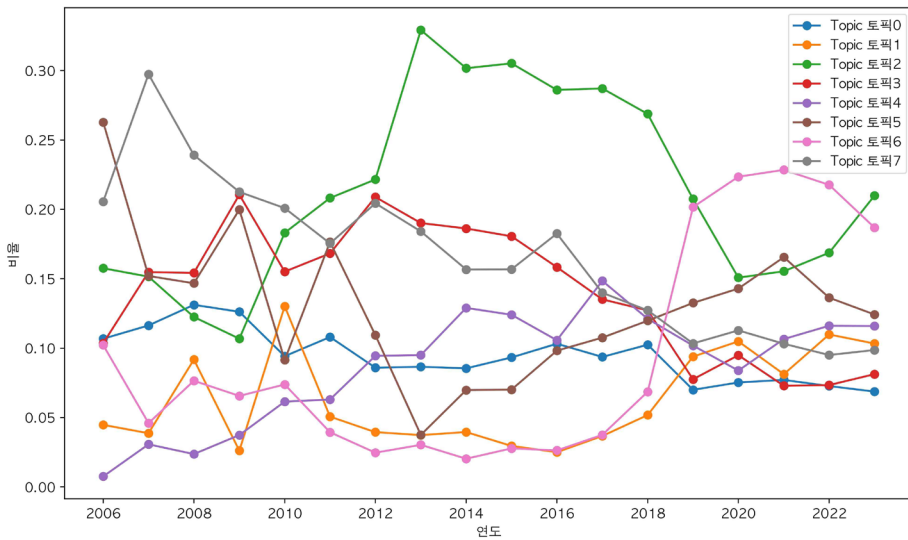
[표 3-3] 세종에 대한 카페 게시물 LDA 결과

순위	토픽0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1	세종	세종	단지	공원	세종	세종
2	감사	행정	아파트	반대	사람	생각
3	맛있	시민	마을	세종	생각	대전
4	가격	사람	세종	존치	도시	아이
5	추천	수도	가격	중앙	부동산	도시
6	쪽지	이전	거래	금개구리	아파트	사람
7	부탁	민주당	새롬동	조성	분양	서울
8	정보	국회	실거	시민	서울	상가
9	팬텀	반대	입지	호수	집값	생활
10	분위기	국민	감사	습지	지역	학교
11	카페	대통령	부동산	도시	대전	아파트
12	시간	정치	매물	지역	가격	감사
13	식당	시장	평수	시설	주택	시간
14	맛집	생각	분양	보호	전세	동네
15	음식	정부	학원	필요	투자	상권
16	사진	나라	상권	라돈	정도	이사
17	대전	후보	추천	자연	인구	정도
18	친절	의원	운동	공간	이상	교통
19	정도	추진	주복	생각	공무원	이용
20	커피	문제	동네	환경	상승	공원

- 대전 및 세종의 LDA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하기위해 각 토픽의 연도별 비율을 계산
- (그림 3-6)은 대전 LDA결과로 도출된 토픽들의 시계열 비율변화
 - 2007년 부터 2010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토픽7은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
 - 일상-맛집 관련 토픽인 토픽2는 2009년부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2020년~2022년 사이 부동산 열풍에 의해 부동산-투자 토픽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점차 비율이 하락
- 2023년 현재 맛집관련 토픽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부동산-투자 토픽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픽이었으나, 2019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일상-인간관계 토픽은 2012년까지 높은 비율을 보이는 토픽 중 하나였으나,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여 2023년 현재 가장 낮은 비율의 토픽중 하나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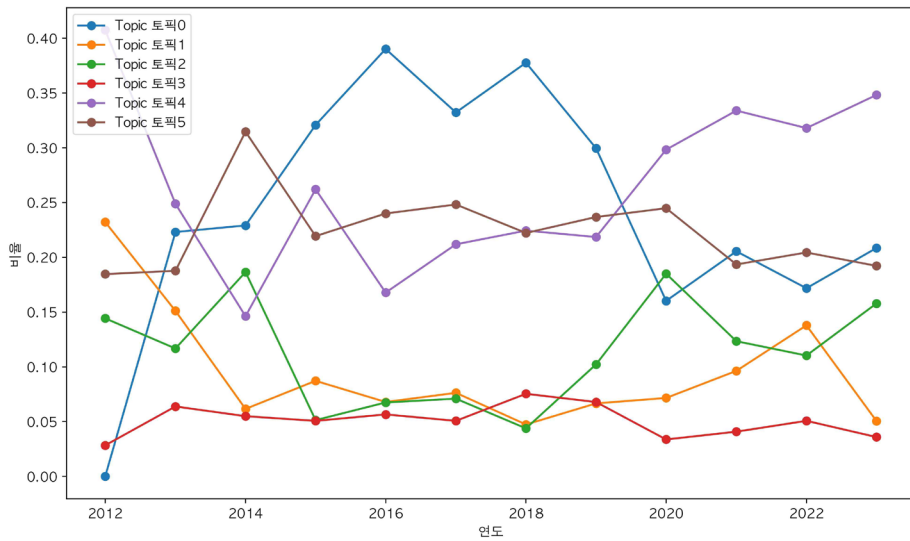


- 토픽0: 우리 동네 얼마나 살기 괜찮은가
- 토픽1: 대전지역 발전 가능성
- 토픽2: 사진찍기 좋고 분위기 좋은 카페 식당, 맛집들
- 토픽3: 결혼으로 생긴 친밀한 관계와 고민들
- 토픽4: 대전의 전통 맛집들
- 토픽5: 학군과 교육 여건 좋은 동네
- 토픽6: 부동산 시장 현황과 투자
- 토픽7: 아이와 엄마가 가는, 아이 사진찍기 좋은 곳

[그림 3-6] 대전 LDA모델의 연도별 토픽 비율 변화

○ (그림 3-7)은 세종 LDA결과로 도출된 토픽들의 시계열 비율변화

-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조성된 계획도시인 만큼 2012년부터 부동산-투자
와 관련된 토픽이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러나 사람들이 세종시에 점차 정착하면서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
일상-맛집 토픽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2020년이후 대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토픽이 가장높
은 비율을 차지
- 금개구리관련 토픽은 2018년과 2019년에만 다소 비율이 상승하였으
며, 다른 기간동안에는 낮은 비율을 보임
- 부동산-정주환경 토픽은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임



- 토픽0: 분위기 좋은 카페, 맛집 추천
- 토픽1: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화제들
- 토픽2: 학원과 상권이 잘 형성된 아파트 단지는 어디인가
- 토픽3: 중앙공원 금개구리 존치를 둘러싼 화제들
- 토픽4: 서울과 비교해 세종은 투자할만한, 규모를 갖춘 도시인가
- 토픽5: 대전이나 서울과 비교해 세종에서 아이 키우는 여건

[그림 3-7] 세종 LDA모델의 연도별 토픽 비율 변화

○ 두 도시 모두 맛집, 부동산-정주환경, 부동산-투자 토픽이 상위를 차지

-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일상-인간관계 토픽이 대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세종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때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점차 꺼리게 됨
- 따라서 두 도시의 카페 이용자들은 카페를 정보획득 및 공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삼가는 경향이 존재
- LDA를 통해 문서내 존재하는 잠재 토픽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지만 단어간 관계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은 LDA분석의 한계
- 따라서 단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간 관계를 분석할 필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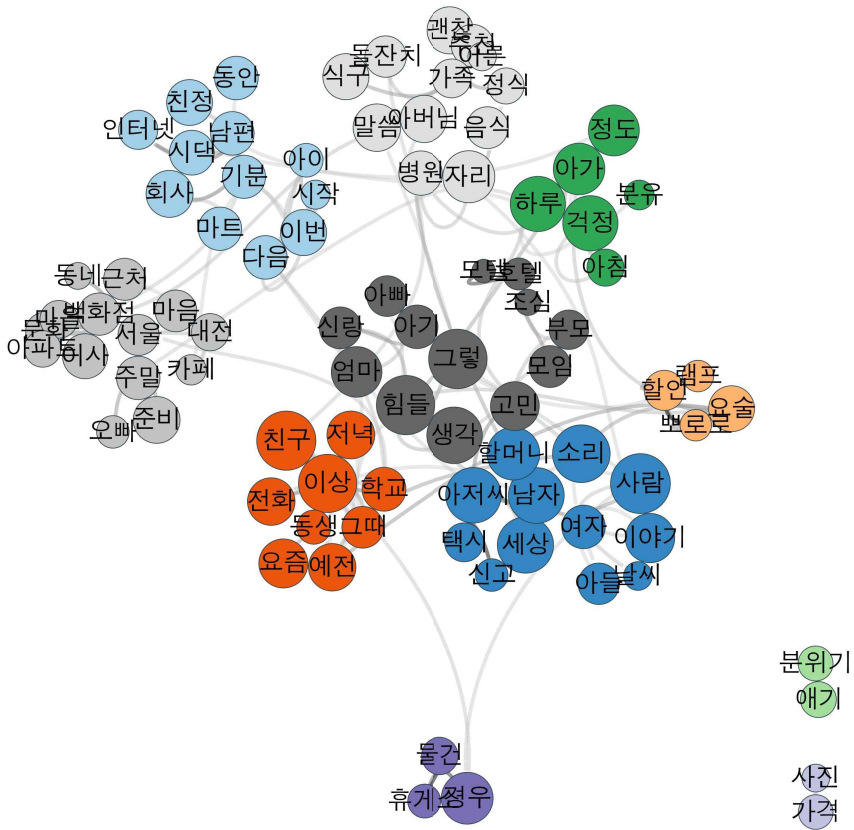
3) 이야기 구조 파악: 의미연결망 분석

- 연도별 단어들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미 연결망 분석 수행
 - 의미 연결망 분석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내고 관계중심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웹페이지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인 PageRank 기법을 응용하여 각 단어의 중요성을 측정
 - Louvain's Algorithm을 활용하여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의 클러스터를 도출
- TF-IDF결과로 도출된 상위 100개 단어를 활용하여 동시출현매트릭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 수행
 - 노드의 크기는 노드의 PageRank값을 의미하며, 색상은 노드가 속한 클러스터를 나타냄
-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네트워크 엷지의 상위 97 퍼센타일의 엷지만 활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엷지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노드들은 시각화에 활용되지 않음
- 앞선 분석처럼 대전과 세종시를 나누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및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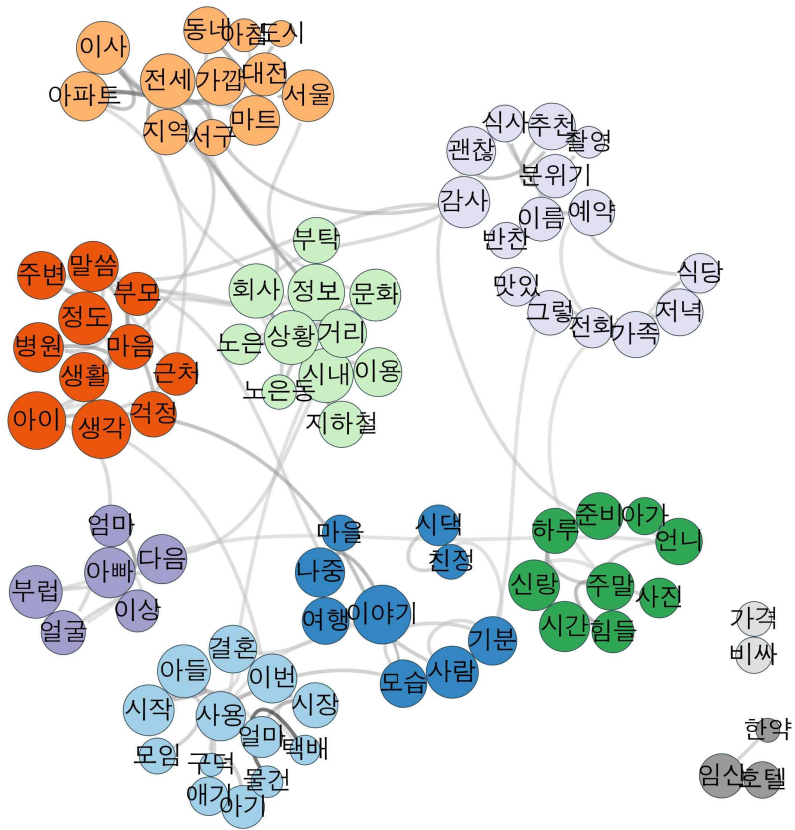
□ 대전 동네 거주 경험과 이웃, 사적 고민에서 아파트 투자 경험으로 전환

○ 대전의 경우 2007, 2010, 2016, 2018, 2020, 2023년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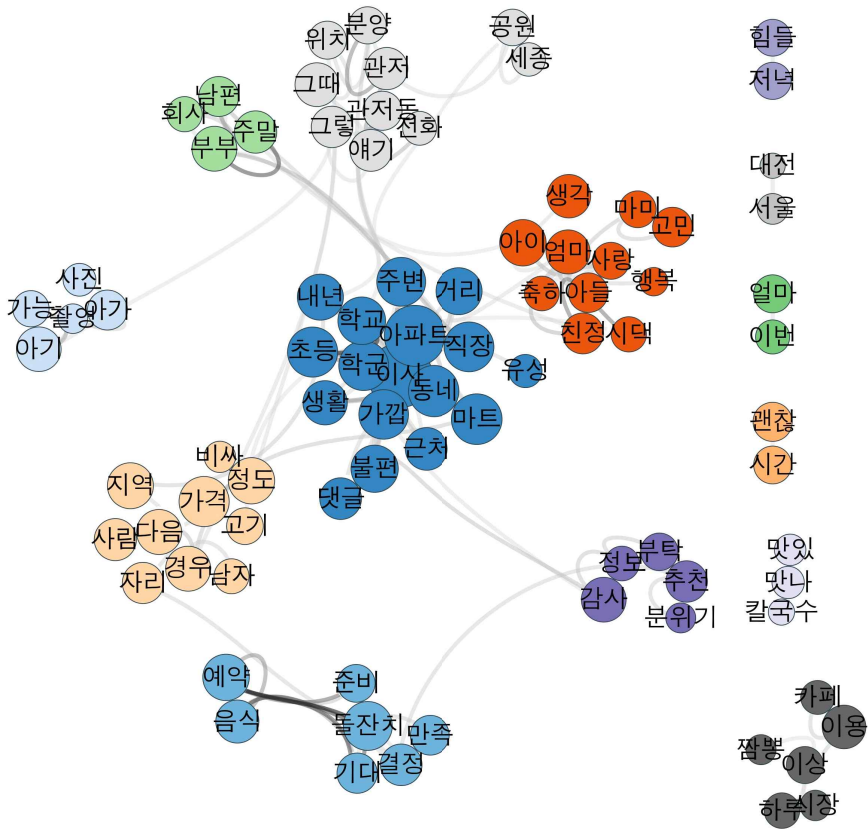
- 2007년의 네트워크는 일상관련 단어 클러스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 및 대전이 네트워크에 등장하나 카페, 백화점, 주말 등 단어와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되므로 여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2010년에는 맛집 추천관련 단어 클러스터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아파트단어는 '마트', '동네'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나타내는 단어와, '서울', '대전', '서구'처럼 지역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카페에서 부동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투자가 아닌 타지역, 혹은 지역내 이주를 위한 생활환경 정보 목적임을 의미
- 생활환경 및 학군정보 중심의 부동산관련 클러스터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2016이후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하였으며 관저동과 세종시의 분양정보관련 단어클러스터가 등장했으나, 일상 관련 단어들의 클러스터는 점차감소하는 경향 보임
- 2018년 이후 부동산-생활환경 및 학군 정보 클러스터와 부동산 투자 관련 단어들이 모인 클러스터가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부상
- 하지만 맛집 정보관련 단어들은 파편화된 클러스터로 나뉘었으며, 일상생활 관련 단어 클러스터는 상당히 줄어들음
- 2020년 대다수의 단어네트워크는 부동산 투자관련 단어였으며, 생활환경, 학군 단어 클러스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보임
- 특히 '도시', '개발', '계획', '사업' 이 '대전', '서울'처럼 지역단어들과 함께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개발계획에도 관심이 있었음을 보임
- 2020년 일시적으로 코로나 관련 단어들 또한 하나의 클러스터 형성
- 2023년 부동산 관련 단어들이 큰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지만 하락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
-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반도체', '산업', '도시', '개발', '계획' 등과 같은 단어들 또한 대규모 클러스터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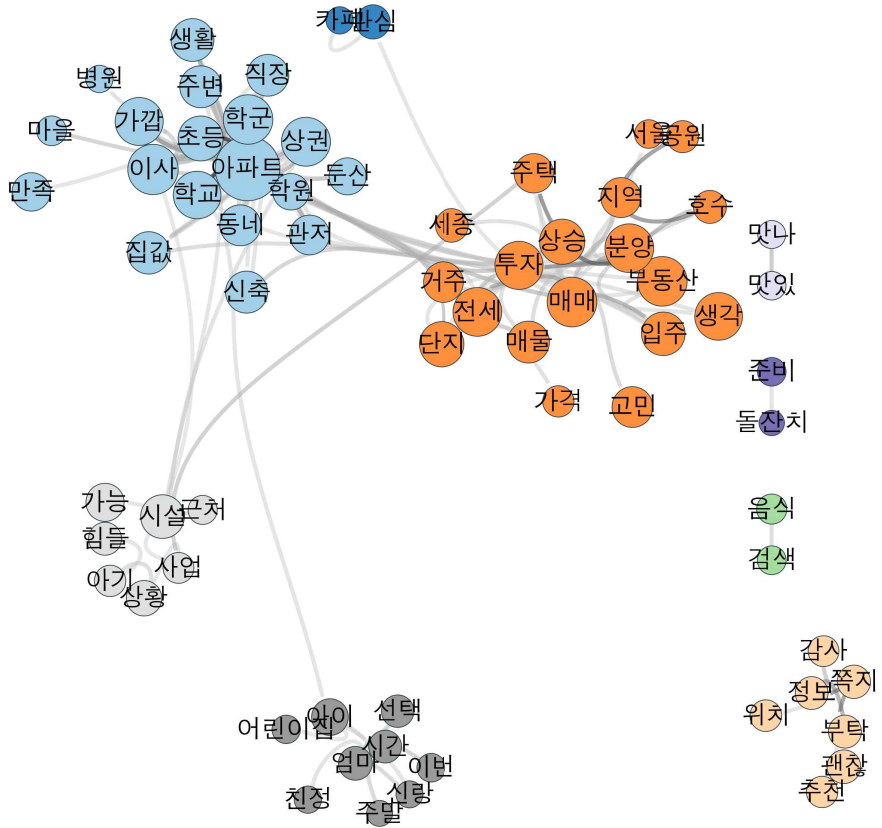
[그림 3-8]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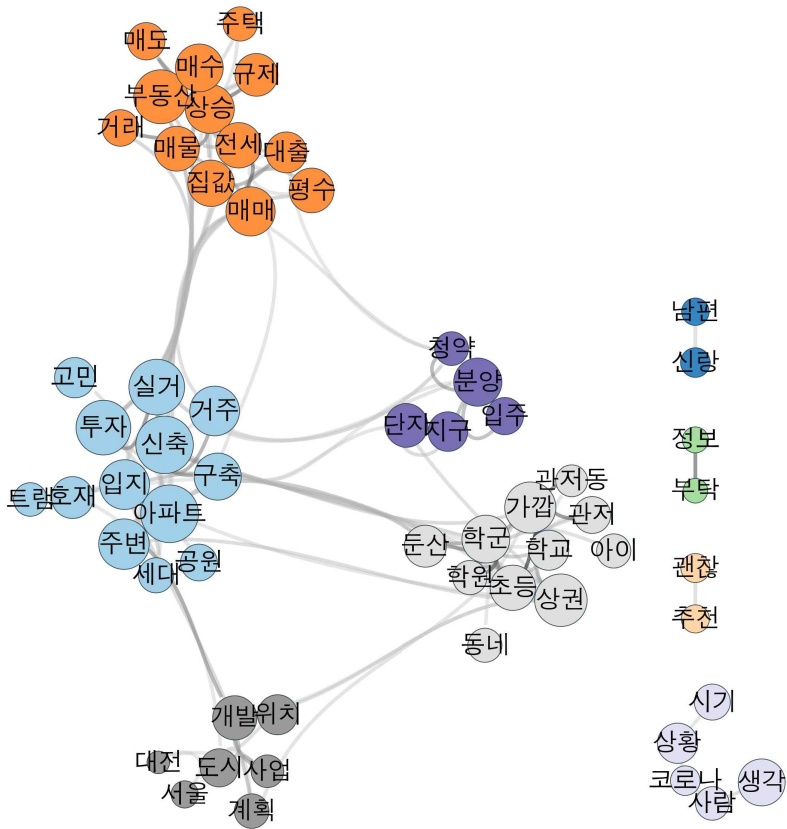
[그림 3-9]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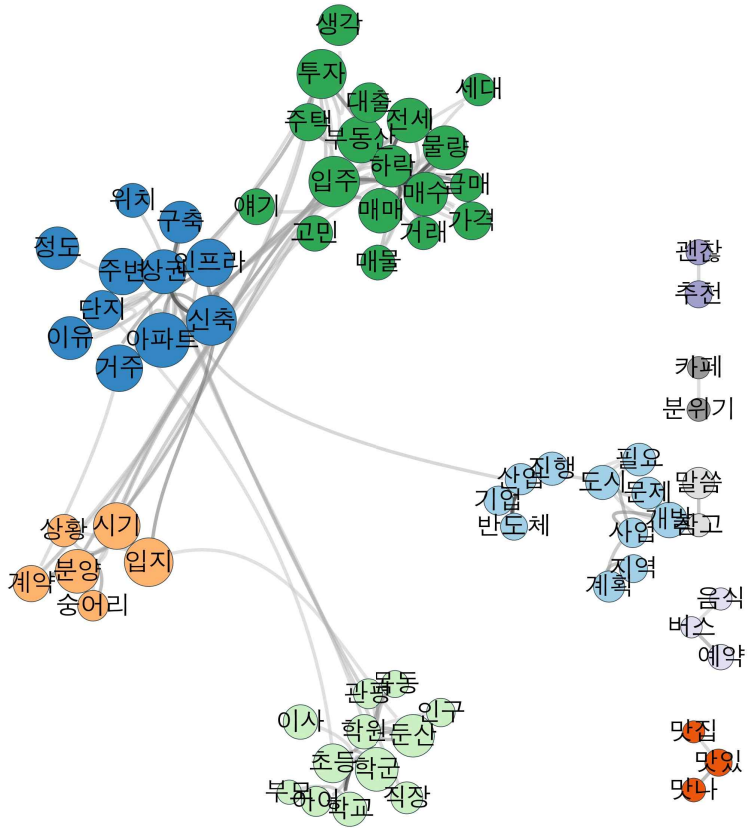
[그림 3-10]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6)



[그림 3-11]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8)



[그림 3-12]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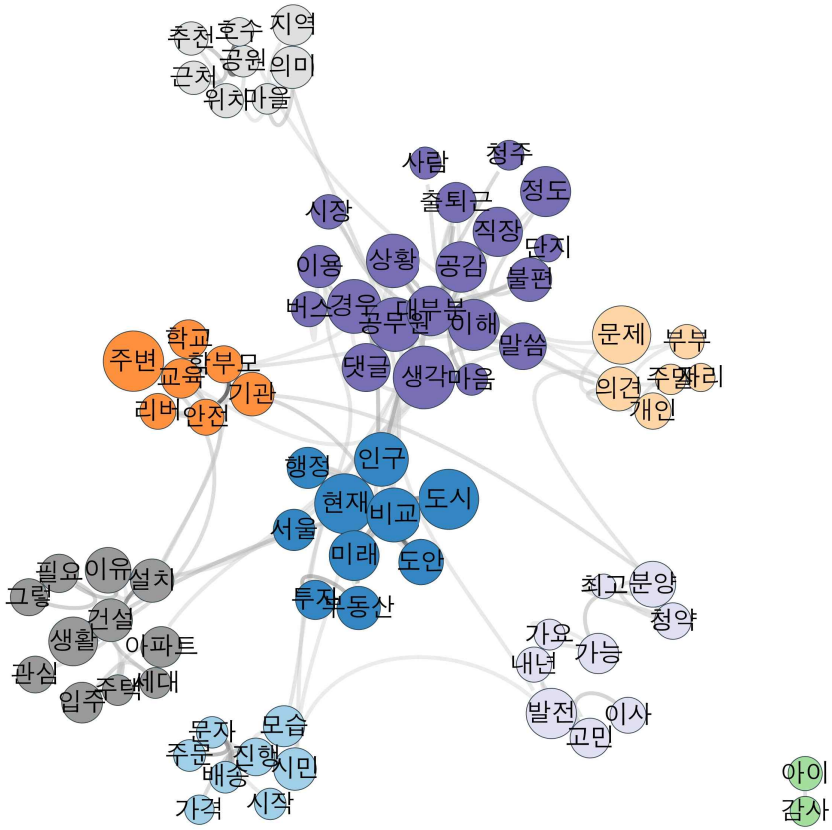


[그림 3-13] 대전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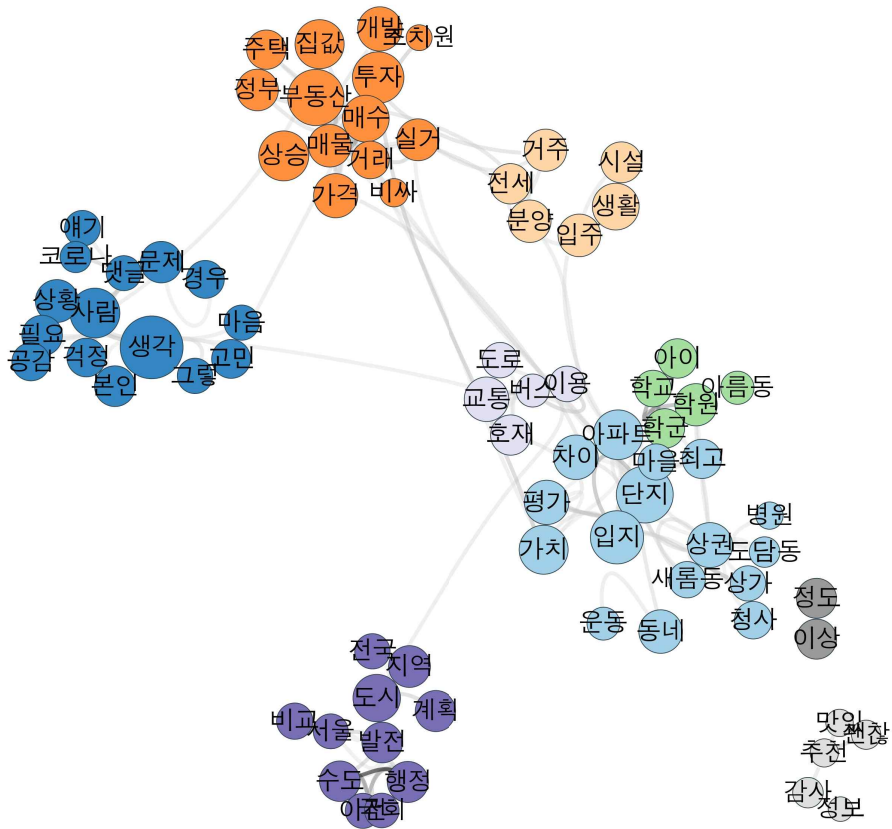
□ 세종시 미래와 공동 운명체, 정책과 정치에 관심 많은 아파트 투자자들

○ 세종의 경우 2013, 2016, 2020, 2022년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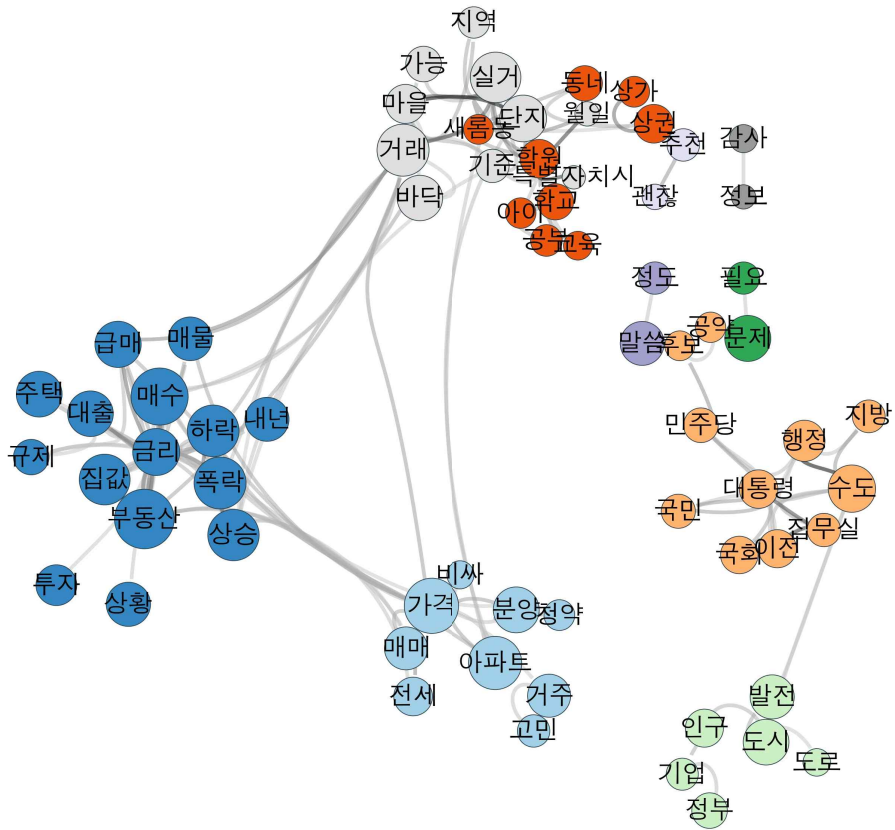
- 세종시의 행복도시가 조성되고 입주가 시작된 이후 2013년의 단어네트워크는 상당히 파편화된 클러스터를 보임
- 대전과 달리 국책으로 개발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거시적 발전가능성에 대한 단어들과 클러스터들이 눈에 띄
- 특히 '공무원', '아파트', '서울', '도시', '발전'이 포함된 클러스터의 경우 이전 공무원들이 서울 대비 세종시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주를 고민했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 행복도시에 입주 및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이후 공무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불편이 가장 큰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환경이나 학군에 대한 단어 및 클러스터가 증가
- 2020년의 단어클러스터는 부동산 투자, 생활환경 및 학군에 대한 단어들이 각각 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관련 클러스터가 존재
- 2022년에도 부동산 투자관련 클러스터가 존재하나, 대전시 사례 처럼 포함된 단어 중 '하락', '급매', '규제' 등 하락과 관련된 단어들이 눈에 띄
- 종합적으로 대전과 달리 일상관련 클러스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외지인으로 구성된 만큼 지역을 '투자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또한 행정수도이전을 목표로 건설된 도시인 만큼 정치와 관련된 단어 클러스터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국회', '정부', '집무실' '수도', '이전' 등), 거시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단어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대전시 단어 네트워크와 큰 차이점임



[그림 3-15] 세종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16)



[그림 3-16] 세종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0)



[그림 3-17] 세종지역에 대한 이야기 단어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2022)

5. 소결

- 지역민 또는 대전과 세종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 수집과 분석
 - 발화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
 - ‘지역 살기, 어때, 분위기, 맛’ 등 지역과 도시 경험을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검색어를 통해 특정 게시글과 댓글 크롤링
- 2017년 이전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었으나, 2018년 이후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 즉 아파트 매매와 가격 변동 경험, 이후 부동산 투자 관련 내용들이 주로 공유되고 이야기됨
- 세종은 특히, ‘금개구리’, ‘수도이전’, ‘행정도시’, ‘공무원’ 등 세종시만의 독특한 주제 및 단어들 이 나타났는데, 이는 세종시 카페에서 시민들이 시기별 중요한 이슈와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사는 곳 living place에서 사는 것 buying place(object)로 전환

- 2006년부터 살펴본 대전지역 온라인 카페의 이야기들은 사적 관계 형성과 동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랜 화제였음
- 2018년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2020년 최고점을 찍으면서³⁾ 아파트 투자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 주제를 잠식함
 - 개인과 소소한 일상,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에서 투자와 부동산 시장,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

아파트 난민 refugee은 이 도시의 미래와 내집 (아파트) 가치 염려

- 세종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신도시로 모여든 일종의 아파트 난민
- ‘세종 신도시의 미래와 발전이 곧 나의 미래’란 생각이 드러난 이야기 주제와 구조

3) “지난 10년간 대전시 아파트 매매 시기별 주요 이슈”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 86호」 (2023. 9. 30.)

- 대전과 달리 개인과 동네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 국가 정책과 도시 계획 변화, 정치적 약속 등에 초점을 둔 이야기가 중요

‘기승전아파트,’ 이 도시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투자처

- 2020년 코로나 이슈조차 도시생활이야기에서 아주 적은 지분 차지하고, 동네와 도시 경험 이야기는 아파트 매매 변동 흐름과 일치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은 돌봄 care giver 아닌, 투자자

- 맘카페 담론에서 남편과 시댁, 이웃 이야기는 아파트 이야기에 묻힘
- 가족 내 중산층 여성의 역할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에서 아파트 투자 성공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투자자’로 변경됨
 - 진정한 가족 돌봄, 가족의 미래가 아파트 투자 성공에 달려 있다는 인식 드러냄

거대 온라인 공동체는 자본주의 시장의 테스트베드, 진짜 공동체 역할 못해

- 카페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내용은 삼가는 경향이 있고,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짐
- 수십만 가입 회원이 있는 지역 카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 보다는 시장의 흐름(특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된 경향 큼
- 내 집의 가치를 온라인 공동체 안에서 평가받고 확인하려는 경향 강함

도시 경험은 곧 투자 경험, 도시(장소)와 개인의 간 관계 감각과 성찰 필요

- 소비자나 소비재로 남은 개인과 도시와의 관계
- 대전과 세종이란 광역급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역적인 것’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자 중요한 의미는 ‘이 도시에서 구매한 아파트’
 - ‘자본(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지역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

- 소비재로서의 가성비, 가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지역성 혹은 정체성 형성의 요소로 작용
- 장소를 경험하고 감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소를 '구매'한 이야기가 장소 취향 발굴 이야기 압도
- 지역성, 지역적인 것의 발굴은 개인의 깊이 있는 성찰과 감각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함

시민 협업을 통한 대전 세종의 지역 정체성 탐색

1. 시민 컬렉터 구성과 운영 개요
2. '지역적인 것' 컬렉팅 작업 결과

4장

4장 시민 협업을 통한 대전 세종의 지역 정체성 탐색

1. 시민 컬렉터 구성과 운영 개요

1) 시민 컬렉터 구성

목적

- 물리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혼합된 도시 장소를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하고 감각하는 개인 수준의 과정과 특성 파악
- 거대한 추상성 지닌 도시를 개인이 어떻게 포착하고 물성이 있는 매체(사진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 과정과 특성 파악
- 건축물, 지형과 자연, 역사기록물 등 거대한 대상과 집단을 다루는 지역 아카이빙 방법론에서 벗어나 ‘개인이 아카이빙한 (수집한) 지역’ 결과물 제시
- 전문 사진작가와의 협력 및 개별 컨설팅 과정을 통한 개별 아카이빙 결과물의 미학적 완성도 제고
- 지리적 대상지 혹은 집단으로 존재하는 지역 연구 대상 범위를 ‘개인과 장소 관계’로 좁히되, 결과물(이미지와 글)의 영향력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역학의 새로운 비전 제시
- 지역 탐색과 장소성 발굴의 과정에서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 탐구 혹은 지역 즐기기의 방법 제시

시민 컬렉터 위촉

- 연구진 및 지역학 전문가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개인 동의 과정을 거쳐 ‘시민 컬렉터’로 위촉함

-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입장을 가진 시민 열 명으로 함
 - 대전지역 대상 활동 8인, 세종지역 대상 활동 2인으로 구성
- 시민 컬렉터는 이미지와 글 관련한 전업 예술가가 아닌, 이미지와 글 생산에 재능이 있으면서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 있는 준전문가라 할 수 있음

2) 시민 컬렉터 활동 운영 과정

- 구성한 시민 컬렉터 활동은 사전 교육과 전문 사진작가와의 컨설팅 및 협업의 과정을 거침
- 시민 컬렉터 운영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계	방법	내용
컬렉터 선정	연구진 · 전문가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렉터 개인 면담 후 동의 절차 진행 • 최종 10명의 시민 컬렉터 선정과 구성
▼		
연구원과의 계약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조사원 지위로 위촉 • 검직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 조항 명시
▼		
역량 강화 워크숍	전문가 강의와 그룹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5 ~ 8.26 오프라인, 8.31 온라인 • 3일, 약 10시간 • 지역 아카이빙, 장소성 발견, 표현의 기술 등 커리큘럼에 따른 진행
▼		
개별 활동과 작가 컨설팅	현장활동, 온라인 미팅과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지역 현장 탐방, 사진과 자료 수집 활동 진행 • 사진작가 김재연 그룹 및 개인 지도 • 정기적인 온라인 그룹 미팅과 개별 미팅을 통한 작업 활동
▼		
중간 발표회	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4 오프라인, 연구원 멀티미디어실 • 활동한 내용과 방법, 사진 성과물 개별 발표 • 도시 아카이빙 전문가, 연구진 참여 토론

단계	방법	내용
개별 활동과 최종 성과물 작업	현장활동, 온라인 미팅과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보고회 피드백 반영한 개별 활동 • 사진작가 김재연 그룹 및 개인 지도 • 최종 발표회를 위한 사진 선정과 작가 노트 글 작업
최종 발표회	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 오프라인, 커먼즈필드대전 • 일반 시민 초청 사진과 작가노트 감상 • 개별 발표와 시각예술평론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참여 토론

[그림 4-1] 시민 컬렉터 구성과 활동 과정 개요

3) 시민 컬렉터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 본 과업의 목적과 방향성 이해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집단 워크숍을 기획해 운영함
- 집단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4-1] 시민 컬렉터 워크숍 프로그램

일시	소요		주요 내용
	시간	hr	
8.25. 금요일	14:00 ~ 15: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렉터 워크숍 1 • 시각의 발견: 장소성,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15:30 ~ 16: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장소를 발견하고 경험한다는 것: 대전여지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원(월간토마토 편집장)
	16:30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토의
8.26. 토요일	10:00 ~ 11: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렉터 워크숍 2 • 공간의 물성과 나: 관계 형성의 순간을 잡아채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미(시인)
	11:15 ~ 12:1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문화 기획자의 도시 기록기: 동네도 둘러보면 여행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애림(로잇스페이스 공동대표)
	13:30 ~ 15:3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과의 관계 형성과 포착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연(사진작가)
	15:30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토의
8.31. 목요일	20:00 ~ 21:3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설계가’로서의 지역조사와 아카이브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빈(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10.14. 토요일	09:30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보고회 • 전문가 패널: 김정빈(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12.2. 토요일	09:3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발표회 ‘도시 컬렉터의 수장고를 엿니다展’ • 전문가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정미(대전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윤희일(경향신문 선임기자) 이연숙(시각예술평론가)

2. '지역적인 것' 컬렉팅 작업 결과

- 대전과 세종 지역의 '지역적인 것'을 찾는 컬렉터의 방법론적 특성
- 나와 지역, 도시, 장소와의 관계 찾기를 통해 도시 정체성 규명
- 도시의 다른 면, 숨겨진 이야기 발굴을 통한 입체적 도시 정체성 구성

1) 도시를 보는 시선의 발견

- 지역 혹은 도시의 정체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컬렉터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됨
 - 컬렉터의 사회적 위치, 입장, 특성(개성)과 주된 관심사 등에 따라 도시 장소와 사람들, 문화현상을 해석하는 접근 방법과 내용이 달라짐
- 도시의 특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컬렉터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입장이 드러남 택함
 - 과로하는 직장인, 경력단절 여성, 소수자 등의 사회적 위치와 존재 방식이 드러남
- 개인적 관점과 시선에서 시작해 도시 공간과 사람들, 공동체와 나를 연결 짓는 작업 방식을 택함
 - '관찰'이 기본 실천 방법이며, 익숙한 공간과 사건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사유해서 나와 도시의 관계를 결과물로 제시함
- 컬렉터 박혜성, 김재연(초록)⁴⁾, 오 늘, 조규식의 작업 방식과 결과물이 이에 해당함

사(私)적인, 사(事)적인 장소들

박혜성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곳

4) 사진작가 김재연과 동명이인으로, 이름 옆에 (초록)으로 별도 표기

장소: 무엇이 있거나 무엇이 일어나는 곳

일할 수 있는 곳이 곧 사는 곳이 되는 세상이었다.

사사(司事)로운 곳이 사사(私事)로운 곳이었다.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전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갑자기 왜 대전이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서'라고 했고, 몇 개월 지나 살 만 한지 묻는 친구들에게 '도시에서 탁 트인 하늘이 보여. 아직은 높은 건물들이 서울만큼 없어서.'라고 했다. 2017년, 거기서 아예 살 생각이냐는 질문에 '가능하긴 해. 서울에서는 전세도 못 구할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거든.'이라고 했다. 2023년, 이제 친구들은 거기 괜찮은 병원이 있는지를 묻는다. 병원 다닐 나이 되도록 내가 여기 살 것 같단다.

기억과 이야기가 누적된 공간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2014년의 나는 대전이 내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했다. 확신은 지금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삶의 흔적들이 이 도시에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의 나는 현재의 청년정책들이 인정하는 '청년' 이었다. 청년이었으나, 작년 2월부터 더 이상 아니게 됐다. (어디까지나 행정적 기준이지만 써놓고 보니 갑자기 팍 늙는 기분이다.) 나의 '청년기' 10년을 고스란히 대전에서 보낸 것이다. 10년간 나는 피곤했고 숨 쉬고 싶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진들은 나라는 인간이 이 도시에서 지난 10년 간 주로 하늘을 보았고 사람 없는 공간에서 쉬었다는 증빙자료들이다. 뭘 어떻게 포장해 보려고 해도 사적인 장소들마다 내 청년기를 가득 채운 '피로와 위로'의

흔적들이 적나라하다. 별 수 없다. 부디, 보기에 쓸쓸하더라도 아름답기를.



보문산(문화동), 출근 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이 깨버린 어느 날,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걸었다.

걸어야겠다는 생각했을 때 기분 좋게 걸을 수 있
지척에 있다는 건 이 동네의 가장 큰 매력이다



문화동, 야근

야근을 자주 하다 보면
달의 주기를 관찰하게 된다.

살도 차고 기우는 주기가 있을텐데
난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림 4-2] 박해성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박혜성은 일과 분리된 시간, 대전에서 일을 털어낸 내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결과를 사진과 글로 표현함
- 일 때문에 대전에 온 사람들과 일 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를 드러냄
- 오고 가는 출퇴근길에서 바라본 하늘에서 도시와 나를 연결 짓기고 이 도시가 지닌 장소적 특성에 자신의 일상과 감상을 투영함

구석으로

- 숨 쉴 구석, 믿을 구석

김재연(초록)

• 나의 정체성

40대 후반, 여성, 수도권의 4년제 대학 사회학과 졸업.

강릉에서 18년, 서울에서 18년, 대전에서 10년 짜 거주.

서울에서 더 좋은 명함을 갖기 위해 분투,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 가족이 있는 대전으로 와 살아 있음.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고, 직장을 다니지만 명함이 없음. 주로 기간제 근로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지만, 글쓰기로 돈을 벌지는 못함.

5년 전 협착증 수술,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지만, 면접을 볼 때는 건강한 노동자인 척 함.

사회적 가치, 삶의 질과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그럴수록 '소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함.

• 왜 구석인가?

40대 중반 이후 '기능적이고 쓸모 있는' 사람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낌.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곳, 구석진 곳, 낮고 낮은 것, 밀려난 것에
눈길이 감.

소속이 희미한 나와 같은 존재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어디에나 구석은 있다, 광장에도, 깨끗한 공원에도, 산책로에도 있을
구석을 찍어 보기로 함.

구석은 비어있지 않고, 다양한 존재와 이야기들이 몸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음.

• 결국, 나에게 구석이란?

잠시라도 숨 돌릴 수 있는 곳, 누군가의 믿을 구석, 그래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곳, 심심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조금 늦게
가도 내 몫이 남아 있는 곳.

뛰지 않아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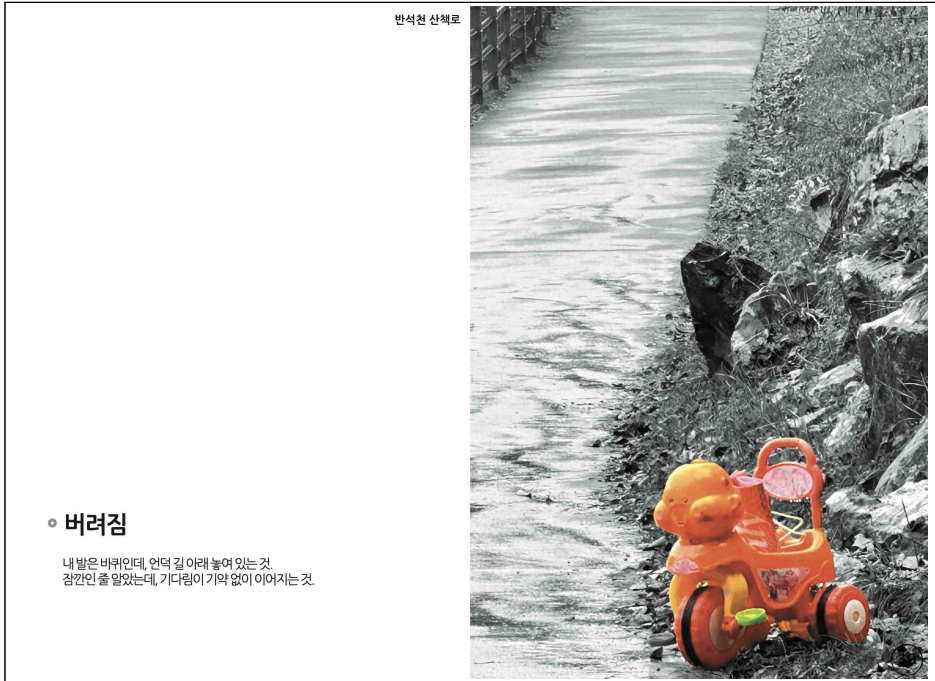
뭐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곳, 그래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



◦ 숨 실 구석

대전 지하철의 끝, 세종의 시작인 곳, 이렇다 할 경계가 없다.
구석에서 나뉘는 대로의 경계가 만들어진다.
선을 넘을 때는 잠시라도 머뭇거릴 시간이 필요하므로.

반석역 1번 출구, BRT 종점



[그림 4-3] 김재연(초록)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김재연(초록)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곳, 구석에 대해 사유하고 관찰한 결과를 제시함
 - 중심에서 떨어진 것같은 자신과 화려한 관심에서 떨어진 도시 구석의 어떤 점을 연결시킴
 - 나와 닮은 도시의 이면을 조명하는 따뜻한 시선을 제시하고 있음

공존(共存)

오늘

빛과 어둠

우리 눈에 비치는 상은 모두 빛으로부터 가능케 된다.

빛이 닿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따라서 우리는 불을 밝히고, 빛은 비준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은, 채 빛이 닿지 않은 곳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빛은 어둠을 착취한다.

비인간과 인간, 장애와 비장애, 비정상과 정상

인간은 비인간으로부터 분리된다.

수많은 약속과 규칙 속에 인간은 정형화된다.

거르고 걸러 정제된 표준의 무언가로 인간은 상정된다.

인간이 되지 못한 것들은 인간에게 외면 받지만, 서로 연대한다.

중요한 것만 남겼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버려졌는가 이다.

금지와 위반

표준 시민은 수많은 약속과 규칙을 만들고 또 쉽게 위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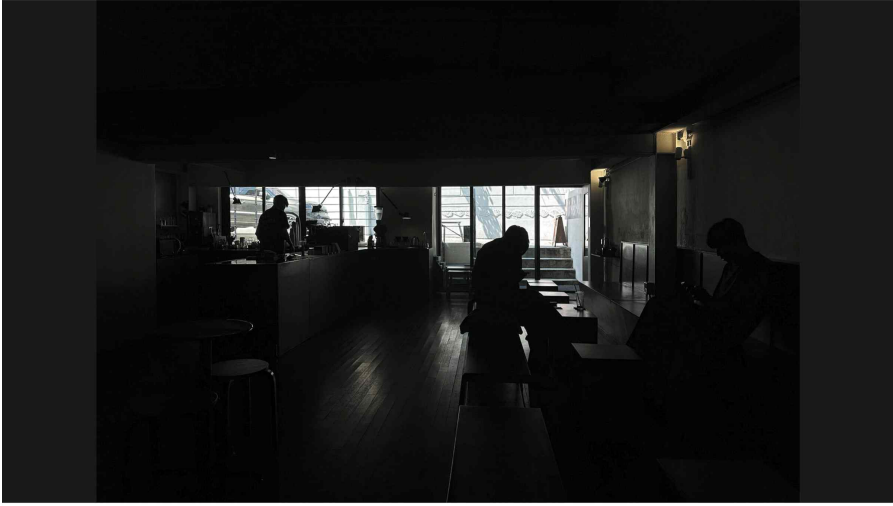
할 수 있는 것들과 해선 안 되는 것들 사이의 위태로운 선을 탄다.

강력하고 강제적인 금지의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면 용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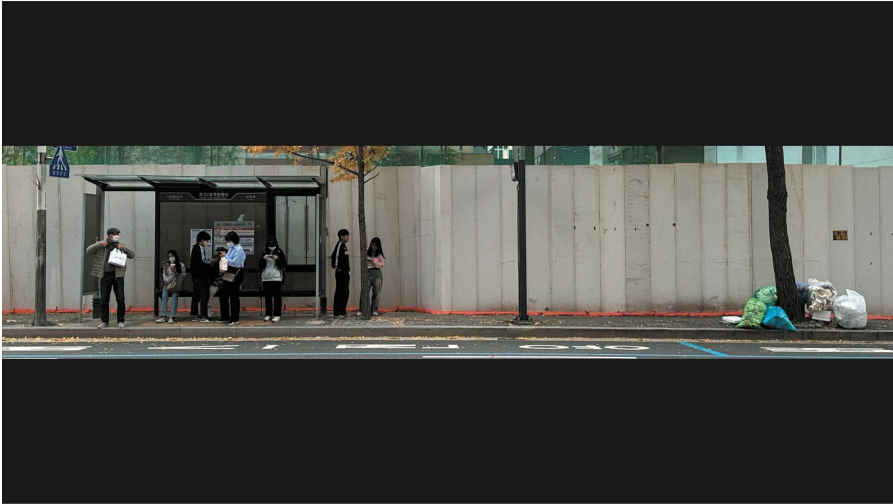
용서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규율이 많다는 것은 넘나들 선이 많다는 뜻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그만큼 벌을 받을 일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 받는다.

오늘 作



00



01

[그림 4-4] 오 늘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오 늘의 작업은 빛과 어둠, 순응과 위반 등 대비가 분명한 것들이 혼합된 도시 모습을 드러냄
 - 양립 불가능한 것들의 공존은 상처나 고통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위로를 희망하게 되는 도시 속 존재들의 이면을 드러냄

OO 씨의 일일

조규식

1. 2005년 대전을 떠나 2014년 돌아왔다. 대전에 정착하는 상상을 해본 적 없는 나는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를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이 도시 사람이라고 정체화 하지는 않았다. 대전 사람임을 시인하는 것은 오래된 욕망, 곧 서울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 도시에 단단히 발붙인 채 마음은 이곳에 두지 않았다. 오래 인지부조화를 겪었다는 말이다.

2. 2020년 결혼을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안정을 느낀다. 나의 동네, 이 도시가 내게 주는 것들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이번 작업을 하며 대전 생각을 많이 했고 안 가본 곳들을 가보고 가본 곳들은 더 갔다.

3. 6년째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점에서 만난 친구들 서른 명에게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중 80%가 타지역 거주 경험이 있거나 얼마 전 대전에 온 사람이다. (서울의 서점에서는 지방 사람들이 만나고, 지방의 서점에서는 서울 사람들이 만난다는 농담) 이들 대부분 역시 지금 대전에 살고 있을 뿐 대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친구들의 답변 중 중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편안, 여유, 한적, 평지, 녹지, 교통 편리, 안전

2 지역색 없음, 무색무취, 심심, 무난

지리적 입지, 편리한 교통 덕에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대전을 오간다. 필연적으로 지역 색이 강하기 어렵고, 언어/성격/음식/정치 중 무엇 하나 뚜렷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뚜렷한 색 이 없다는 건 잘 섞일 수 있다는, 수용적(受容的)이며 수용성(水溶性)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든 와서 살 수 있는 곳,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곳,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4. 위 생각들을 하며 나의 일상 행로를 사진에 담았다. 사진을 찍으며 새삼스레 느낀 점이 있다 면 이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하며 끊임없이 변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평면의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해내기 어려워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에 겹쳐 보기로 했다.

1 평면에 여러 레이어를 쌓아 정보량을 늘리고

2 복잡한 이미지로 시각적인 재미를 주고

3 투명도가 낮아 뚜렷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섞어 하나로 만든 '수용'적 사진

5. OO 씨를 내세워 각 장소에서 생각한 것들을 글로 덧붙였다.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6. 이번 작업을 통해 대전에 애정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는 스스로를 대전 사람이라고 정체화 한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 살더라도 누가 물으면 대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일류 경제도시 대전
Daejeon is U - 대전이 비

별감고 각진 한글과 파란
OO는 혼란스러웠다. 일류
나? OO는 자신과 일류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너
아닌데... 그럼 다시 '대
일류 경제도시 어떻게 과
한번 더 나아가 볼까?
에 □□이다 다양성 무
하지만 많은 것들이 비약
에서 본 거리가 먼 듯
했다. 동시에 다른 말은
이 아니었다. 도시가 살면
주저하던 OO는 뒤늦게 가
졌다.

OO가 하는 유일한 문
작은 천변에서 출발, 천
지 10km를 달린다. 달리
는 달리기 코스 가 가까
이다. 평이한 마트 병
리며 산책하는 사람과
는 사랑, 고교와 두류(비
다), 도시의 대로 대학
백화점을 보고 지난다. <
것은 달리기를 시작하고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

[그림 4-5] 조규식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조규식의 작업은 관찰하고 감각한 도시의 장면, 이미지를 겹치기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성을 드러낸 시도임
- '이 도시는 물갈다'는 느낌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도시의 여러

장면과 공간을 겹치기 함

- 잘 섞이고, 흐르고, 떠나는 도시의 성격을 표현했으며, 시청 및 5개 구청의 캐치프레이즈의 섞임이나, 도시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은 감각적이면서도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음

2) 도시 물성物性的 이면裏面 발굴과 해킹

-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스펙타클한 광경을 주체적으로 침투해서 새롭게 이미지로 생산한 방법임
- 관광안내 홍보물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도시 전경이 제시하는 '감상해야 할 것 같은 심미적 포인트'를 거부하고 새로운 도시 아름다움을 발굴한 과정임
 - 낯선 장면을 드러내고, 도시의 그 공간과 장소가 지닌 매력의 이름과 감상해야할 지점을 스스로 드러냄
- 주체적으로 장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과정이며, 공간 쓰임새와 아름다움의 기준을 새로 제시하고 있음
 - 자유로운 공간 해석,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음
- 권인호, 전우영, 김윤정 컬렉터의 작업 방식과 결과물이 이에 해당함

도시를 해킹하다, 스페이스해킹

- Hacking the City, Space hacking

권인호

누구나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두 가지였다. 위험한 곳에 올라(들어)가지 마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마라(다친다). 근데 이 행위는 무척이나 원초적인 행위인 것 같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어렸을 때의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구쟁이에다가 높은데서 뛰어내리다 여러 번 다치기도 했지만, 사회에 대한 적응은 빨랐다.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몸가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젊음을 뺏고 움직임은 최소화되었다.

원초적인 행위에 대한 욕망은 수그러들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화 인디어나 존스와 야마카시, 그린피스가 벌이는 과격한 시위를 보던 내 안에는 항상 그런 욕망이 남아있었다.

있고 있던 욕망은 우연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 주말이면 차를 타고 지나던 길에서 항상 보던 숲길과 폐교를 어느 날엔가는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를 세우고 숲길을 헤치며 들어간 그곳에는 22만평에 달하는 버려진 옛 공장터가 있었다. 흡사 포스트 아포칼립스처럼 모든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공간이 주는 장엄함과 웅장함에 매료되었다.

그 곳이 이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곳, '옛 충남방직 대전공장'이었다. 충남방직 대전공장은 1979년에 준공된 공장으로 7,80년대 섬유산업의 호황기에 만들어졌지만 90년대에 내수부진, 인력난, 임금인상 등으로 섬유산업의 쇠락에 따라 폐쇄되었다.

이후 나는 이 욕망의 활동을 스페이스 해킹(Space Hacking)⁵⁾이라 이름 붙였다. 숨겨진, 금기시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침투(hacking)한다는 뜻이다. 책과 웹에는 URBEX 또는 Place Hacking이라는 이름을 단 일련의 도시탐험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모험과 방문지는 지금도 나를 설레게 한다.

그 뒤로 나는 대전에서 29군데의 공간을 해킹했지만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오늘 소개하는 두 군데다. 충남방적을 방문한 뒤로 나는 마치 에베레스트 등정을 꿈꾸는 이처럼 중앙로를 지날 때마다 메가시티라는 건물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대흥동 메가시티는 지하 4층 지상 15층에 연면적이 4만제곱미터에 달한다. 2002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지만 2004년 중단된 뒤 지금까지 미완공이자 유찰 상태로 남아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금기시 되는 것을 욕망한다. 현대의 도시는 안전한 욕망만을 허가한다.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출근하고, 정해진 도로를 따라 걷고, 허가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우리의 욕망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안에서만 반짝거릴 뿐이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누군가가 산으로 등산을 갈 때 나는 도시 속의 숨겨진 공간을 탐험한다”고.





[그림 4-6] 권인호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권인호는 도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면들, 특히 스펙터클한 장면이 때
료되어 작업함
 - 방치된 폐건물에서 ‘장관’ ‘아름다움’과 ‘긴장감’을 발견하고 이를 시
각적으로 드러냄
 - 도시의 겉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용기 있게 들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장소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음
- 권인호의 작업은 짓다 만 건물, 폐허에서 이 도시의 다른 면을 발견하
고 해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것을 찾는 새로운 시도’란 평가
를 받음

색을 찾아 떠난 여정

전우영

지역과 나

5) 스페이스해킹 프로젝트 아카이브
(<https://www.facebook.com/spacehackingdaejeon>)

연고도 없는 낯선 곳 조치원. 팬데믹 시기 대학 하나만으로 이곳에 온 나는 지역에 정을 붙이기 참 힘들었다. 처음 왔을 때 이곳은 나에게 무색 도시에 가까웠다. 그래도 대학 밖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해온 만큼 조치원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에게 조치원이란?

(오래된 것 옆으로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시장과 기차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 등등) 다양한 답들이 나왔으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그동안 내 시선으로 이 도시를 판단 한 경험이 거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역적인 것을 정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전우영은 말이조용

밝은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의욕이 넘치는 사람- 보통 이렇게 정의된다.

스스로 꽤나 비관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보는 나의 이미지에겐 여전히 밝은 색이 묻어있나 보다.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나의 능력이라면, 내 눈으로 담아내는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작업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따뜻 - 하다.

일단 무작정 걸어 다니며 눈에 들어오는 것을 찍기로 했다. 다보익선. 이게 나의 방법이였다.

사진을 찍기 시작한 첫날, 길에서 한 아저씨를 만났다. 과제를 하느냐는 아저씨의 물음은 30분 가량의 대화로 이어졌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원한 커피까지 한 잔 얻어 먹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마음이 풍족했다.

이 도시, 생각보다 삭막하지 않을까?

색깔 수집가

세종은 회색 도시로 불린다. 처음에는 내게도 무색 도시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 나는 이 지역 속 수많은 색들을 발견했다. 색이 없는 도시는 없다. 처음에는 빨주노초파남보 단순히 색을 찾겠다고 떠난 여정이 오로지 나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해주었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이 공간 구석 구석에서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나에게, 이번 작업은 내가 도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제는 길을 빙빙 돌지 않고 녹아들어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알록달록

칙칙한 건물 사이로 흐르는 빨간색 - 파란색 - 노란색 미끄럼틀



[그림 4-7] 전우영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전우영이 가진 시선의 특성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음’에 있음
 - 관심 없던 도시, 나와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도시였기에 선입견과 의도가 없었다는 방법론적 특징 있음
 - 선입견과 특정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열린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바랜 색’부터 ‘째하고 알록달록한 색’까지 도시의 다채로움을 발견할 수 있음
- 지방 중소도시의 ‘바랜 빛’을 멋으로 생각하고, 회색처럼 무채색으로 존재하는 도시에서 ‘색을 수집’하는 과정은 앞으로 도시 골목 관광의 한 방향을 드러낸 것이기도 함

窓을 통해 본 정동

김윤정

정동과의 인연

○ 2017~2019년 무궁화프로젝트 참여

이후 2021년 대전시 문화재단의 지역리서치로 다시 방문
현재 무궁화프로젝트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작성 중
그리고 다시 정동을 찾다.

3년간 무궁화프로젝트로 들쭉이던 정동이 사업종료 후 더 스산해졌다.
골목을 들어서면 아직도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 한장 수다를 떠다.
"왜 자꾸 여기는 와?" 투명하게 내뱉는 말이 반갑다는 입가의 미소를
이기지 못한다.
휘휘 뒷골목까지 돌아 나오면 익숙하지만 마음 아린 풍경이 기다린다.
정동은 2020년 쪽방촌 재개발 발표 이후 4년째 멈춰있다.



25



주인 떠난 이 빈 집은
매년 옥상에 피는 부추꽃이 아직 살아 있음을 말한다.

[그림 4-8] 김윤정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김윤정은 정동의 좁은 골목 서사를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음
 - 화분과 꽃이 많은 곳, 하지만 성매매를 유도하는 의자도 길거리에 많은 곳인 정동의 특성이 드러남
 - '창'은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사라지고 있는 고령의 여성들과 정동의 정갈한 낡음이 비슷하다는 점도 이 장소가 지닌 특성으로 드러남

3) 도시의 낯선 타인들을 비추는 마음

- 어느 지역이든 파편화된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있으나, 단순한 나열이 아닌 특정 주제를 강조한 이야기로 엮어낼 필요가 있음
- 도시는 거대하고 추상적이지만, 개인에게 관계 맺고 있는 타인들이 어느 순간 중요해지기도 함

- 광역시는 대부분 이주자들로 채워진 도시고, 늘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많은 옛것들이 사라지고 있음
 - 개인적 관계없는 타인들이 '관계있는' 관계망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한 컬렉터들의 작업은 도시의 입체성을 강화함
- 광역시에 없을 것 같은 농촌 지역이나, 신도심 조성으로 밀려난 조상들의 흔적을 조명하는 과정은 현시점의 광역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공동체성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함

이주의 도시, 이 주의 도시

-City of Moover, City of the Week... Where am I?

김한솔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이주의 경험이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서울, 내일은 대전, 모레는 보은.

오래 '산' 곳과 오래 '살' 곳이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멍칫거리게 되는 순간이 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인가? 오래 산 곳이 고향인가?

행정 서류에 적힌 본적을 뒤져보거나, 주민등록지를 말해야 하는 건가? 태어난 곳과 오래 산 곳이 다르고, 공부한 곳과 일하는 곳이 또 다르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늘 움직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다문화가구가 많은 마을인 대전 대덕구의 대화동에 주목해 보았다. 196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2000년대부터는 나이가 들어 은퇴한 이들의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기 시작했다.

2023년 현재의 대화동은 그야말로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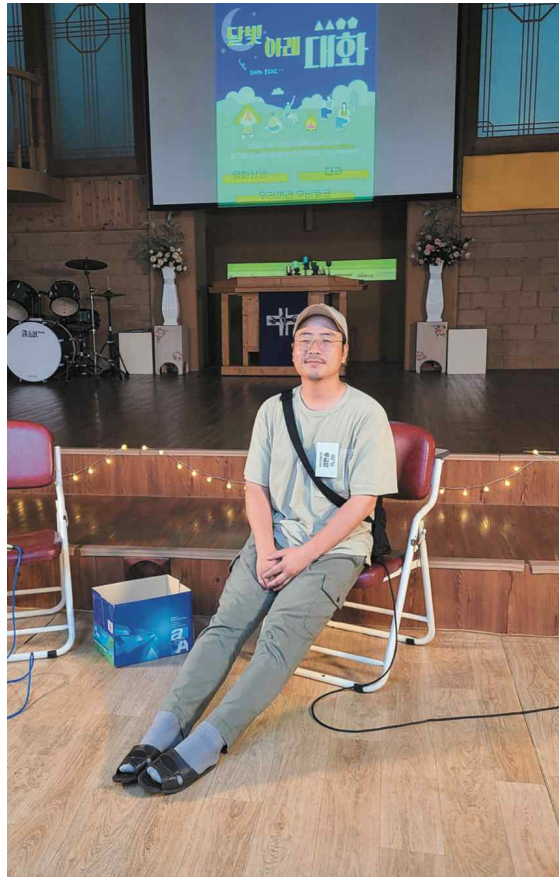
대화동의 이주민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장소(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다른 이주민인 '나'를 사진으로 기록해 주기를 요청했다.

'누군가'의 공간이었고 또, '누군가'의 공간이 될 곳

과거이자 미래의 장소에서, 현재의 이주민이 또 다른 이주민을 담아내었다.

그 어색하고, 불편하고, 새삼스러운 감정이 담긴 기록물을 오늘 꺼내어 본다. 대화동을 넘어 어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 이주민 김한솔 보냄.





2023.10.11
'대화의 방' 골목

[그림 4-9] 김한솔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다른 도시에서 대전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조명하면서도, 그 이주민들이 찍은 자신의 모습을 '불편하고 어색하게' 드러낸 김한솔의 작업은 이색적임
 - '외지인 구성 비율이 높은 이 도시의 특성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음
-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두 이주민(외국인)을 배치함으로써 나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섞인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줌
 - 서로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공유하는 이주민의 정서, 대도시의 감성이 드러나 있음

상실(喪失)과 흔적(痕跡)

이현

평생을 가족이 일구며 살아온 고향을 잃어버린 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몇 대를 이어 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일가를 이뤄온 마을에서 나고 자라온 나에게 고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십 여년을 외지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은 고향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며 언제든지 찾아가면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 같은 정겨운 풍경과, 익숙한 냄새로 나를 감싸주는,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 그 이상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2017년 세종으로 이주할 때 옛 연기군 남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만든 조합아파트로 이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거창한 이름 앞에 고향의 상실을 겪은 이들이 나의 옆집, 아랫집, 옆동에서 내 이웃으로 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진 고추와 들깨, 콩을 말리는 정겨운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 고향 풍경을 떠올렸다. 하지만, 벽찬 기대를 가지고 이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촌스럽다’, ‘아직도 연기군이야?’ 라며 날카롭게 반응할 뿐이다.

국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고향에서 내몰린 이들은 그들이 가진 정서를 더 이상 편하게 공유하지 못한다. 이주민들에게 원주민들이 느끼는 상실의 기억은 촌스러움, 낡은 것, 옛 면 시절 풍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수용(收用)과 소개(疏開)라는 낯선 단어와 함께 고향은 순식간에 옛 모습을 잃었다. 세거리, 장터, 용기공장, 마을 어귀의 석장승.. 어디를 둘러보아도 옛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아니 흔적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 이름 없는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수용을 끝까지 거부하던 이들의 마지막 흔적인 보존가옥과 토공이 가법게 남기고 간 약속을 여전히 품에 안은 채 도시화석으로 머물러 있는 흔적도 발견 되었다.

고향집, 마늘밭, 뒤업자리, 돌담길, 당산나무, 마을뒷산 등의 모습을 구석구석 사진으로 찍어서 오래된 핸드폰 앨범에 보관하고 고향이 생각날 때 마다 그 조그마한 액정 속 사진을 들여 본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난다.

‘생각날때마다 봐요(웃음) 집 모습만 보면 미치겠어...

이 집을 버리고... 고향 산천 다 버리고..

웬니까 400년 역사를... 안타까워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을 떠나, 삶의 터전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가슴 속으로 기억한 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아니 흔적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 이름 없는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수용을 끝까지 거부하던 이들의 마지막 흔적인 보존가옥과 토공이 가법게 남기고 간 약속을 여전히 품에 안은 채 도시화석으로 머물러 있는 흔적도 발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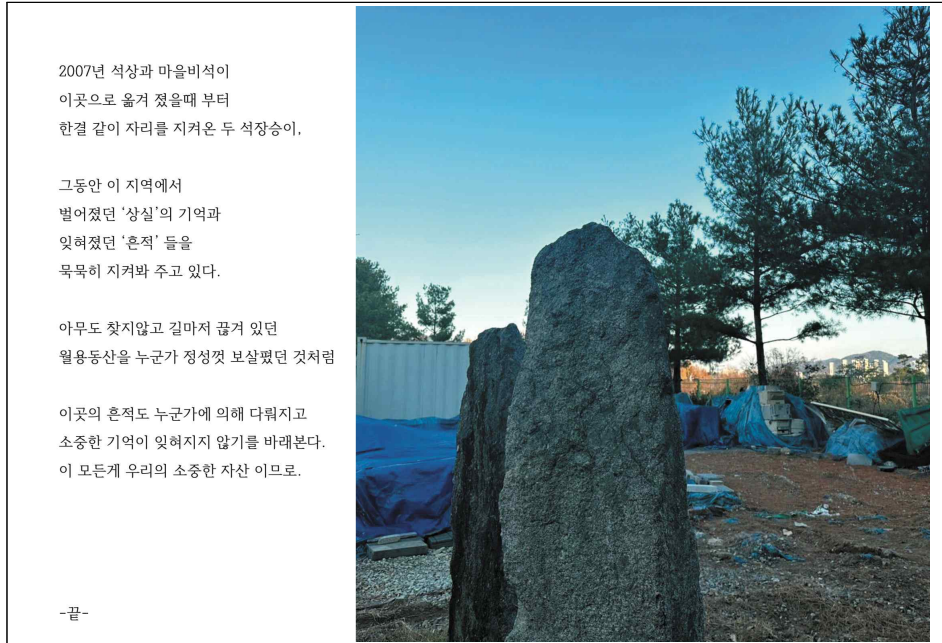
고향집, 마늘밭, 뒤업자리, 돌담길, 당산나무, 마을뒷산 등의 모습을 구석구석 사진으로 찍어서 오래된 핸드폰 앨범에 보관하고 고향이 생각날 때 마다 그 조그마한 액정 속 사진을 들여 본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난다.

‘생각날때마다 봐요(웃음) 집 모습만 보면 미치겠어...

이 집을 버리고... 고향 산천 다 버리고..

웬니까 400년 역사를... 안타까워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을 떠나, 삶의 터전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가슴 속으로 기억한 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림 4-10] 이 현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이 현의 작업은 현재 많은 신도시가 지닌 개발 이면의 모습을 드러냄
 - 도시의 여러 측면, 특히 사라지고 있는 물상을 아카이빙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지역적인 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은 역사적 유물이며,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지역적인 것; 연
- 원대이마을에 '사는' 사람들

임유진

'광역시'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대전 지역의 한 '변두리'에는 '원대이마을'이라는 목씨 집성촌이 있다.

그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유성구 대정동으로 분류되지만, 동네에 오랫동안 사는 이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원땡이마을이라 부른다.

원땡이마을에서는 목 씨 성을 가진 이들이 대대손손 땅을 물려주며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여전히 그 땅에서 먹을거리를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땅에 얼마 전 대규모 도로개발을 하겠다는 도시계획이 들어섰다. 그 땅의 소유주인 목 씨 종친회에게는 보상금이 생겼고, 그 보상금의 분배 기준 중 하나는 ‘여성은 남성이 받는 보상금 절반만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속상하지만 말을 삼킨 여성들이 대다수였으나, 이에 ‘성차별’이라고 목소리 내는 목 씨 성을 가진 여성이 있었다.

그는 내 친구이자, 나와 함께 원땡이마을에서 텃밭을 일구는 ‘모농숲’ 주민 모카다.

3년 전 시작한 ‘모농숲’은 현재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 <피스어스>⁶⁾의 주요활동으로 자리잡아 있다. 또 내가 서투르게, 게으르게나마 땅을 감각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

‘모농숲’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을 지은 우리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진 않지만 서로를 ‘주민’이라 호명한다.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모이며, 각박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느라(와 같은 핑계로) 텃밭을 방치하며 때로 죄책감을 느낀다.

그렇게 원땡이마을 터줏대감 금예 할머니와 길순 언니의 꾸지람을 들으며, 그러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원땡이마을을 오간다.

원뎡이마을에 봄이 오면 쭉을 뜯어 쭉버무리를 해먹고, 여름이 되면 감자를 캐고, 비닐을 덮지 않은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풀에게 압도당하며 결국 이웃삼촌에게 경운기라는 s.o.s를 요청하고, 새롭게 갈무리한 밭에서 배추와 무를 심으면서. 겨울에는 비건김치를 담그면서.

‘모농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는 온라인 게임 ‘모동숲’처럼 가상이나 허구가 아니다. 우리는 원뎡이마을이라는 땅에 터를 잡고, 밭을 돌보며 때로 채식요리를 해먹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뎡이마을 땅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원뎡이마을 한가운데 들어서는 커다란 도로가 못내 미운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다.



봄날 하루나

하루나 씨앗을 채집하고서 남은 유도랑에 버리려 하는 금예할머니. 예쁜데 왜 버리냐고 묻는 모카. 씨앗 남은 유채꽃은 우리에게 '꽃다발'이

- 6) ‘피스어스’는 여성, 생태, 예술이라는 가치를 유보하지 않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에코페미니즘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피스어스’는 자연과 서로를 돌보면서, ‘생존(살아남음)’ 너머 ‘생활(삶을 꾸림)’이라는 감각을 깨우길 바라면서 유성구 대정동을 기반으로 공유텃밭 공동체 [모농숲]을 꾸리는 활동 등을 열고 있다. [모농숲]은 ‘모여봐요 농사의 숲’의 줄임말이다.

원뎡이마을



- ‘광역시’라는 정체성을 지닌 대전에서 ‘변두리’에 위치한 동네
- 교도소가 있는 동네
- 목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500년 넘게 모여 사는 동네 (사천 목씨 군선공파 집성촌 마을)

[그림 4-11] 임유진의 작가 노트와 작업 결과 예시

- 임유진의 작업은 광역시에서 잘 보이지 않는 농촌을 조명하고 있음
 - ‘원뎡이 마을’의 특성과 역사 사람들을 보여주며, 지역의 ‘가치’ 혹은 마을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전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제안함
- 세대 간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 여러 존재들의 조화를 색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지역의 어떤 장소를 조명하는 방식과 시선의 온도를 드러냄
 - ‘사람이 없는 사진들이어도 사람이 느껴질 만큼 따뜻하다’는 평을 받음

연구 시사점 및 활용 제안

1.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제안
2. 시민 컬렉터 활동 결과물의 콘텐츠화 가능성 탐색
3. 지역 '지리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5장

5장 연구 시사점 및 활용 제안

1.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제안

- 지역과 도시에 대한 거시적, 전문적 접근과 미시적 활동 결과물의 융합**
 -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 온 경험과 방법은 주로 거시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 지역과 도시 정체성 탐구를 위해 역사를 추적하고 기록하며, 유물과 건축 자산의 의미를 발굴하고 지식으로 기록한 것은 학예사 등 전문가들임
 - 지자체와 국가도 지역과 도시 이해를 위해 계량 데이터(인구, 시민의 삶 측정 정보, 지리 정보, 물리적 공간 조성 정보 등)를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해 옴
 - 계량적이며 거시적이고 전문가적인 지역 연구와 비정형적이고 질적이며, 개인 차원에서 생산되는 도시 이해와 지식 산물도 수집해 분석되어야 함
 - 비정형 데이터(말, 이미지, 소리 등)로 구성된 도시 지식을 꾸준히 분석해야 함
 - 도시에 사는 개인들이 수집해서 생산한 도시 이해의 산물도 지식으로 꾸준히 집적하고 분석해야 함
 - 도시 이해에 대한 다각적 접근은 도시의 인지적 볼륨을 팽창시키고, 더 두꺼운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데이터 큐레이션 기반 도시 수집과 기록 생산, 공유 전략**
 - 기획과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
 - 도시에 대한 정형 데이터 (크기, 인구, 건물의 집적 등을 나타내는 기호와 숫자)와 비정형 데이터(말과 이미지, 영상 등) 융합 기반 현재 도시 모습 기록

- 가치 있는 데이터 발굴과 선별 과정, 현재 도시가 처한 문제와 이슈 기반한 데이터 큐레이션 (맞춤)
- 역사문화유산, 거대한 도시 유형 자산 측정, 기록과 병행할 수 있는 현대 도시의 모습 기록
- 도시 수집가들 (컬렉터) 구성과 활동 결과 활용한 도시 기록
 - 고경옥 외(2023)의 ‘리슨투더시티 Listen to the City’ 작업이나 ‘서울수집(@seoul_soozip)’ 작업은 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탐색 결과를 결합한 사례임
- 개인 수집가들의 기록과 계량적이고 정형화된 도시 데이터 융합
 - ‘지도로 읽는 도시’ 기획은 위치 정보와 다양한 계량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개인 현장 수집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음
 - 매거진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개인 수집의 과정과 ‘수집의 길’ 스토리와 계량 데이터를 융합해 서비스
 - 기획과 데이터 선별과 시나리오 작업에 기반한 도시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축적해야 함

□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융합한 시민 참여형 연구 가능성

- ‘이 도시는 나에게 무엇인가’란 질문하기와 답 찾기
 - 도시 정체성 (장소성) 탐색은 곧 나에 대한 탐색이자 정체성 형성의 과정(주혜진, 2023)
 - 주체적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의미 부여
 - 수집가로 참여하는 시민 교육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연계
- 장소 민주화는 도시와 장소에 대한 개인의 소유 감각에 기반(주혜진, 2023)
 - 소수 엘리트와 공공정책에서 제안한 도시 모델과 기획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시민 주체성 자각과 제고
 - ‘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의 중요성이 곧 지역학 연구의 필수적인 비전으로 채택될 필요 있음

2. 시민 컬렉터 활동 결과물의 콘텐츠화 가능성 탐색

□ 속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 공간 활성화

- 스캠퍼(SCAMPER)⁷⁾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 공간과 건축물의 방향성 결정
 - 가령 해당 건물이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기능으로 재활용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노력이 요구됨
 - 실제 컬렉터가 제시한 공간 중에 고속도로 1호 문화재라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 옛 경부고속도로의 시설물인 대전육교의 관광자원화 논의가 윤설민·염인섭(2021)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바가 있음
 - 아울러 윤설민(2019)의 연구에서는 SCAMPER 기법의 7가지 규칙 중 결합(Combine)과 다른 용도에 사용(Put to other uses) 차원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옥상을 다른 용도(예: 지붕 위 산책+고공 다이빙)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스토리 메이킹’을 통한 명소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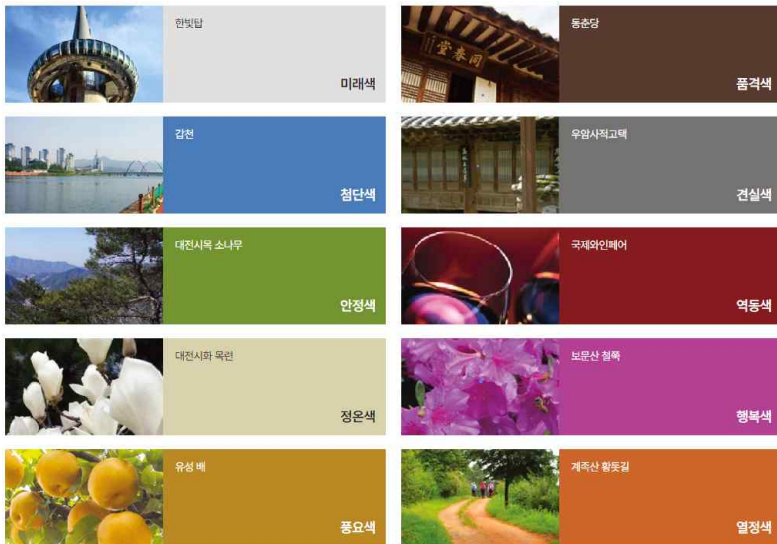
- 시민 컬렉터의 작품 중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구 연기군 남면 양화리 가학동)의 ‘느티나무’는 200년이 넘는 보호수로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주변은 변화된 채 느티나무와 그 아래 나무로 만든 의자만이 존재하고 있음
 - 이처럼 도시에서 사라지고 있는 풍경 중 지켜야 하거나 남겨진 것에 이야기를 만들어 사진으로 남길 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명소화 작업이 요구됨
- Pine & Gilmore(1998)의 체험경제나 Schmitt(1999)의 체험마케팅 관점에서 2가지 이상의 체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에 약간의 변화를 제공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7) 아이디어 도모 차원의 7가지[① 대체(Substitute), ② 결합(Combine), ③ 응용(Adapt), ④ 수정/크게/작게(Modify/Magnify/Minify), ⑤ 다른 용도에 사용(Put to other uses), ⑥ 제거(Eliminate), ⑦ 반전(Reverse)] 규칙을 활용하는 기법으로, 해당 규칙의 영문 첫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용어임(윤설민, 2019)

- 따라서 느티나무, 벤치, 주변 풍경, 길을 배경으로 하는 만들어진 이야기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상물(예: 느린 우체통, 돌탑, QR코드를 통해 들을 수 있는 APP 음악 등)을 투입하여 소소한 즐거움을 연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윤설민(2022)은 소소한 즐거움을 연출하여 작은 공간 또는 대상을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하고, 사람들의 방문을 도모하는 랜드마크 공간(예: 대청호 노고산성의 ‘소원의 종’, 수생식물학습원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벨기에 브뤼셀 ‘오줌싸개 동상’, 미국 뉴욕 맨해튼의 ‘돌진하는 황소 동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안한 바가 있음

□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색 수집

- 시민 컬렉터의 ‘색채 수집하기’와 같이 시민들 개개인이 거주하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상이할 것임
- 대전은 2018년 11월 대전을 나타내는 ‘대전10색’이라는 10가지 대전 색(色)을 발굴·선정하였지만, 민간 등에서의 활용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음(중도일보, 2019.8.21.)



[그림 5-1]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대전 10색’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눈을 통해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비치는지를 색(color)으로 찾아 도시를 홍보하는 자료에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또한 세종 역시 이번 시민 컬렉터가 기록한 것처럼, (가칭) ‘세종10색’과 같이 세종만의 색을 찾아 활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전과 세종의 일상 공간 속 색채를 풀어간다면, 다양한 테마의 공간을 소개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지역 ‘지리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연령과 직업 등 시민의 삶과 요구에 기반한 도시 지식 형성

-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지역과 사는 도시에 대한 학습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은 없는 상황
- 연구기관의 축적된 도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도시를 감각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연결하는 시도 필요
 - 연구원 내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 이해와 지식 생산
 - 통계청의 통계 놀이터 (<https://kosis.kr/edu/index/index.do>)처럼 도시 지식 초보자도 쉽게 접근해 도시를 이해하도록 유도

시민에 가깝게 다가가면서도 깊이 있는 도시 지식 생산과 이해 가능하도록 청년 교육자 양성

- 연구기관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주력 타겟으로 설정, ‘처음 배우는 우리 지역, 우리 도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 지역사회 리서치 교육 간 유기적 연계
 - ‘청소년 도시 기록자’, ‘어린이 도시 연구원’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
- 충남대와 카이스트, 통계청 등 데이터 거버넌스 내 기관 인재 발굴과 활용

-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인재를 발굴하고 연구기관 플랫폼과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연계

참고문헌

- 고경옥·박은선·심소미·심현섭·더글라스 가브리엘·제이슨 웨이트·야스민 오스텐도르프-로드리게즈(2023), <미학 실천: 리스투더시티 비평집>, 리스투더시티.
- 고윤수(2018), 在朝日本人 쓰지 긴노스케(辻謙之助)를 통해서 본 일제하 대전의 일본 인사회와 식민도시 대전, <서강인문논총>, 51: 67-105.
- 고윤수(2019), 일제하 대전의 한국인 유지들의 등장과 변화 - 1920~1935년 대전의 주요 한국인 공직자들과 지역사회, <역사와 담론>, 91: 139-177.
- 고윤수(2020), 일제하 유성온천의 개발과 대전 지역사회의 변화, <호서사학회>, 93: 225-262.
- 고윤수(2021), 1910~1930년대 대전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사회, <도시연구>, 28: 109-147.
- 고윤수(2021), 식민도시 대전의 기원과 도시 공간의 형성, <도시연구>, 27: 7-39.
- 고윤수(2023), 일제하 '대전시장'과 대전의 상인세력, <도시연구>, 32: 43-81.
- 권선정(2016), 근·현대지도를 통해 본 대전의 지역변화와 도시 정체성, <문화역사지리>, 28(4): 53-68
- 김기희·황혜란·박노동·염인섭·한상현·지남석·유병선·정선기·곽현근·우희창(2015),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I」, 대전발전연구원.
- 김민석(2020), 해방 이후 대전파혁의 운영과 재편결과, <서강인문논총>, 59: 287-319.
- 김상기(2023), 대전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과제, <충청문화연구>, 28·29: 5-40.
- 김영모(2020), 대전의 과학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인문학연구>, 59(2): 31-55
- 김효경(2020), 대전 원도심지역 이주민 이입(移入) 배경과 활동양상 - 도시민속학의 관점으로, <비교민속학>, 72: 45-76.
- 남기택(2022), 윤채한 시와 1960년대 대전문학, <우리어문연구>, 72: 83-110.
- 문성남·정선기(2022), 마을만들기 운동과 시민연대 -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3-57.
- 박경목(2021), 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 설치와 확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3: 209-256.
- 박근영·김영식(2020), 대전 근대문화유산의 다크투어리즘 자원화 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44(2): 53-72.
- 박수연(2022), 논쟁과 구성 - 전여해와 대전 지역 해방공간의 시적 정체성, <비평문

- 학), 83: 135-156.
-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공간정보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인문지도의 구축,”『열린정신 인문학 연구』17(3): 33-62.
- 송규진(2019), 일제강점기 충남도청 유치 이후 대전 발전의 한계, 〈한국사학보〉, 74: 347-373.
- 송기섭(2015), 대전의 장소성과 문학, 〈문학들〉, 42: 100-119.
- 신익호(2014), 현대시에 나타난 ‘대전 공간’의 형상 연구, 〈비평문학〉, 54: 203-239.
- 심광택(2005), “지역학습을 위한 공간성·장소성·환경가치의 연구: 진주지역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11(5): 349-367.
- 윤설민(2019), <‘대전 Ex(Exciting experience) 10’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 세종연구원 보고서.
- 윤설민(2022), <도시관광의 랜드마크 활용을 위한 대전의 정책적 접근 방안>, 대전 세종연구원 보고서.
- 윤설민·염인섭(2021), <국가등록문화재인 대전육교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연구>, 대전 세종연구원 보고서.
- 위경혜(2017), 극장 문화의 지역성 - 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2): 61-124.
- 이선정(2018), “‘낮설게 하기’를 통한 도시 장소 재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33호: 187-194.
- 이용상·정병현(2019), 근대 대전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22(1): 81-89.
- 이용원(2023), “대전여지도 장동(부대앞): 대전의 뉴욕이라 불리던 곳에는 이제 침묵이 흐른다,” 『월간토마토』 189호(2023. 4.): 68-73, 월간토마토.
- 이재민 외 (2020),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재민 외 (2022),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비전체계와 추진전략 고찰
- 이재민·한상현·고순영·유용환·송다빈(2023), 「세종학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기본구상과 실천전략」, 대전세종연구원.
- 임동욱(2023), “장소성과 장소감을 통한 세종의 정체성 찾기,” 『대전세종포럼』제84호: 40-51.
- 입소스(2019.8.13.),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주요내용과 특징 분석, 〈리슈 리포트〉 55호, 1~20.
- 정병화·김준우(2020), 도시재생지의 장소성변화 토픽모델링 : 대구 방천시장을 사례로. 대구경북연구, 19(1), 27-44.

- 주혜진(2023). 『대전은 왜 노잼도시가 되었나: 성심당의 도시, 대전이 만들어진 이유』 북저널리즘 총서104, 스키체어스 출판사.
- 주혜진(2022a), “대전은 어떻게 ‘노잼도시’가 되었나: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으로 본 ‘장소성’ 소비,”『한국사회학』56(4): 51~102.
- 주혜진(2022b), 『소셜 미디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대전의 힙·핫플레이스 개념 형성 분석』, 대전세종연구원.
- 한남대학교 대전충청학연구센터(1998), <대전·충청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민속 분야를 중심으로>, 대전충청학 학술 심포지움 발표자료.
- 한상철(2021), 식민과 제국의 교차로, ‘역(驛)’의 문학사 - 20세기 전반의 대전역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07: 211-238.
- 한상헌(2021), <문화공간으로서 ‘테미오래’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보고서.
- 한상헌·유병선·김강우·이정림·정선기·손병우·김창수·민병기·오세섭(2017). 「대전 도시 정체성 재정립 연구 4-정체성 인식에 관한 사례조사」, 대전세종연구원.
- 한상헌·지남석·유병선·김강우·정선기·김창수·임재현(2016).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III-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대전발전연구원.
- 한상헌·황혜란·염인섭·유병선·김민석·안여종(2019),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홍용기(2023), 전쟁 트라우마와 문학적 해원 - 대전 골령골에서 한국전쟁의 기억, <문학과환경>, 22(2): 267-290.
- 황훈주(2023), “도시를 들여다보다: 지역 콘텐츠의 광맥 이사동 이야기,”『월간토마토』187호(2023. 2.): 20-23, 월간토마토.
- Pine, B. J., & Gilmore, H. J.(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76(4), 97~105.
- Schmitt, B. H.(1999), Experiential Marketing: How to get Customers to Sense, Feel, Think, Act and Relate to Your Company and Brands, NY: The Free Press.
- 시사위크(2019.12.2.), [그래픽뉴스] 대한민국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
- 중도일보(2019.8.21.), 대전 상징색을 아시나요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444-5(93350)